

한국디자인DNA 심화연구

# 전통마을

심화연구자 한 필 원 (ATA·한남대학교 건축학부)

## CONTENTS

### 제1부 연구개요

- 1장 연구 배경
- 2장 연구 목적
- 3장 연구 방법
- 4장 연구 내용

### 제2부 전통마을의 디자인 원리

- 1장 전통마을의 개념
- 2장 전통마을의 공간구조
  - 1절 마을 공간구조 분석의 틀
  - 2절 마을공간과 공간요소의 관계
  - 3절 공간요소들의 상호관계
- 3장 전통마을의 디자인 원리
  - 1절 확장성과 다양성
  - 2절 주택(한옥)-마을 체계
  - 3절 공동성
  - 4절 환경친화성과 지속가능성
  - 5절 디자인의 유기성과 상대성

### 제3부 대표 마을과 디자인

- 1장 양동마을의 디자인
  - 1절 안대와 공동성
  - 2절 지형을 고려한 상대적 디자인
- 2장 하회마을의 디자인
- 3장 닭실마을의 디자인
  - 1절 자연스러움에 숨겨진 질서
  - 2절 자연과 조화되는 두 가지 방식

■  
제 1부

## 연구개요

## 1장. 연구 배경

2010년 8월 1일, 일요일 이른 아침에 ‘한국의 역사마을: 하회와 양동’이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륙백 년의 역사 를 가진 우리 전통마을이 21세기에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그 전지구적 가치 를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면 전통마을들에 숨어 있는, 시대를 초월해 빛을 발 하는 그 가치들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전통마을에 숨어 있는 그러한 가치 들은 어떤 눈으로 발견해낼 수 있을까?

전통마을의 가치는 현대의 삶터를 성찰하고 그것을 전통마을과 비교할 때 좀 더 분명히 드러난다. 현대의 건축과 도시는 종종 인간을 다른 인간으로부터 또 자연으로부터 소외시킨다. 현대의 건물들은 크고 화려하지만 우리를 땅 과 떼어놓고 우리를 한 없이 작아지게 하곤 한다. 이에 반해, 우리 전통마을 들에서는 현대의 건축 디자인에서 느낄 수 없는 인간적인 분위기가 느껴진다.

최근 대규모 도시재개발이 이루어짐에 따라 역사가 오래된 도시들에서도 공동체의 조직이 파괴되고 있다. 도시의 공동체 공간이던 동네마당과 골목은 사라지고 자동차 중심의 직선적인 가로가 도시공간을 나누어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만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적 조건이 상실되고 있다. 이것은 도시의 공간과 경관을 과도한 스케일의 획일적인 모습으로 바꿀 뿐 아니라 도시의 사회적 성격을 변모시킴으로써 도시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도시생활을 삭막하게 한다.

한편, 1960년대에 등장하여 현재 한국 도시의 보편적인 주거지유형이 된 아파트단지는 사람들이 모여살기는 하지만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단지에는 어린이놀이터·노인정 등의 공동 공간이 있지만, 주민들을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하나의 공동체로 엮어줄 수 있는 공간의 체계는 결여되어 있다.

그에 비해 전통마을에 들어가면 마을사람들은 물론 집과 나무들이 나를 반기고 존중한다. 전통마을에서는 현대인들이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땅과 인간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전통마을의 디자인에 내포된 인간적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시와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의 미덕이었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2장.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마을의 가치와 교훈을 디자인의 관점에서 탐색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통마을의 디자인 철학과 원리를 구명하고, 대표 마을을 선정하여 그곳에 실현된 디자인의 사례들을 상세한 설명과 이미지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현대 디자인에 참조할 수 있는 교훈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전통마을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디자인의 원형을 실증적으로 도출해내려는 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 3장. 연구 방법

본 연구의 기본적인 방법은 현지조사를 통한 사례연구이다. 연구의 사례로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10개의 마을을 선정하였다. 사례 마을의 목록은 다음의 표1과 같다.

이들 사례 마을에 대해서는 필자가 장기간에 걸쳐 관찰실측·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구해왔다. 본 연구는 필자가 수행한 기존의 조사연구를 디자인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표1. 사례 마을 목록

번호	마을명	소재지
1	강골마을	전라남도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2	닭실마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3	도래마을	전라남도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4	양동마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5	옻골마을	대구광역시 동구 둔산동
6	왕곡마을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7	외암마을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8	원터마을	경상북도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9	하회마을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거촌리
10	한개마을	경상북도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 4장. 연구 내용

본 연구의 내용은 ‘전통마을의 디자인 원리’ 와 ‘대표 마을과 디자인’ 등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이를 위해 기초적인 연구로서 전통마을의 개념을 살펴보며, 전통마을의 공간구조를 분석한다. 전통마을의 공간구조는 먼저 마을 공간구조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마을공간과 공간요소의 관계, 그리고 공간요소들의 상호관계로 나누어 분석한다. 전통마을 공간구조의 분석은 연구자가 그간 수행한 현지 실측조사의 성과에 바탕으로 둔 것으로, 마을에 적용된 디자인의 상위 개념들을 도출하여 제시한 것이다.

전통마을의 디자인 원리는 확장성과 다양성, 주택(한옥)-마을 체계, 공동성, 환경친화성과 지속가능성, 디자인의 유기성과 상대성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실증적인 사례를 근거로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디자인 원리를 태동한 이념적 · 사회문화적 배경을 파악하여 전통마을 디자인의 기원을 탐색한다.

이어서 양동마을하회마을닭실마을 등 세 마을을 대표 마을로 선정하고 고유하고 독특한 디자인의 선례를 상세히 논한다. 양동마을의 디자인은 ‘안대와 공동성’ , 그리고 ‘지형을 고려한 상대적 디자인’ 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한다. 다음으로 하회마을의 디자인은 삼신당이라는 ‘공동성의 공간’ 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닭실마을의 디자인은 ‘자연스러움에 숨겨진 질서’ , 그리고 ‘자연과 조화되는 두 가지 방식’ 이라는 측면에서 마을공간에 담긴 질서를 해석 한다.

---

## 제 2부

# 전통마을의 디자인 원리

## 1장. 전통마을의 개념

먼저 마을이란 무엇인가 알아보기로 한다. ‘마을’이라는 말은 집회의 뜻인 ‘모을’ 혹은 ‘모들’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사람들이 모여 집단으로 거주하며 상부상조의 공동생활을 하는 공간 단위를 예로부터 마을이라 불러왔다. 한국사회에서 사람들이 모여 살아온 모습은 마을공간에 농축되어 있고 또한 마을공간은 한국인들에게 삶의 틀이 되어왔다.

마을에는 그 역사적 형성배경이나 지리적 특성 등을 나타내는 고유한 이름이 있으며 따라서 마을은 사람들에게 가장 분명하게 인식되고 전달되는 정주(定住) 단위이기도 하다. 한국 사회에서 마을이 갖는 특별한 사회문화적 의미는 번역어로 전달되기 힘들 정도이다. 그래서 최근 연구자는 마을을 영어로 표현할 때 village나 settlement로 번역하지 않고 우리말의 발음인 ‘maeul’이라고 표기하기로 했다.

한국 전통마을의 전형은 씨족마을이다. 하나 또는 수 개의 씨족집단이 자연을 바탕으로 일정지역에 공존할 때 이를 씨족마을이라고 한다. 씨족집단은 동성동본(同姓同本)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며, 조상의 사회적 지위, 주로 관직에 의하여 위세를 높이려는 집단이다.<sup>1)</sup> 하나의 씨족은 문중(門中) 혹은 종중(宗中)에 의해 조직화되는데, 문중이란 남계(男界)의 종족이 공동 조상의 제사를 모시고 분묘의 보존 내지 종원(宗員)의 친목과 복지를 위해 조직된 집단으로, 5대조 이상의 제사인 시제(時祭)를 봉사하는 집단이라고 정의된다.<sup>2)</sup> 조선시대에 와서 씨족마을은 마을구성의 지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 한국사회가 근대화를 지향하면서 씨족의 결합이 약화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왔다.

장구한 역사를 갖는 수많은 마을들이 근대화 과정에서 대부분 급속히 변화되거나 해체되어 본래의 모습을 잃고 말았다. 이 연구에서 ‘전통마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전근대기에 조성된 마을로서 공동체 공간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을 지칭하기 위해서다.

## 2장. 전통마을의 공간구조

### 1절\_ 마을 공간구조 분석의 틀

그림1은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에 위치하는 ‘원터마을’이라는 한 전

1) 한국농촌사회연구회, 『농촌사회학』, 진명출판사, 1978, 110쪽

2) 이광규, 『한국의 가족과 종족』, 민음사(대우학술총서 인문사회과학), 1990, 199쪽

형적인 농촌마을의 배치도다. 이 도면을 볼 때 당장 어떠한 공간적 질서를 읽어내기는 쉽지 않다. 한국의 전통마을은 기하학적 질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언뜻 보아서는 어떠한 질서를 갖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통마을 특히 씨족마을을 기하학적 관점이 아닌 ‘위상기하학적’ 관점<sup>3)</sup>으로 볼 때 그것에는 명료한 질서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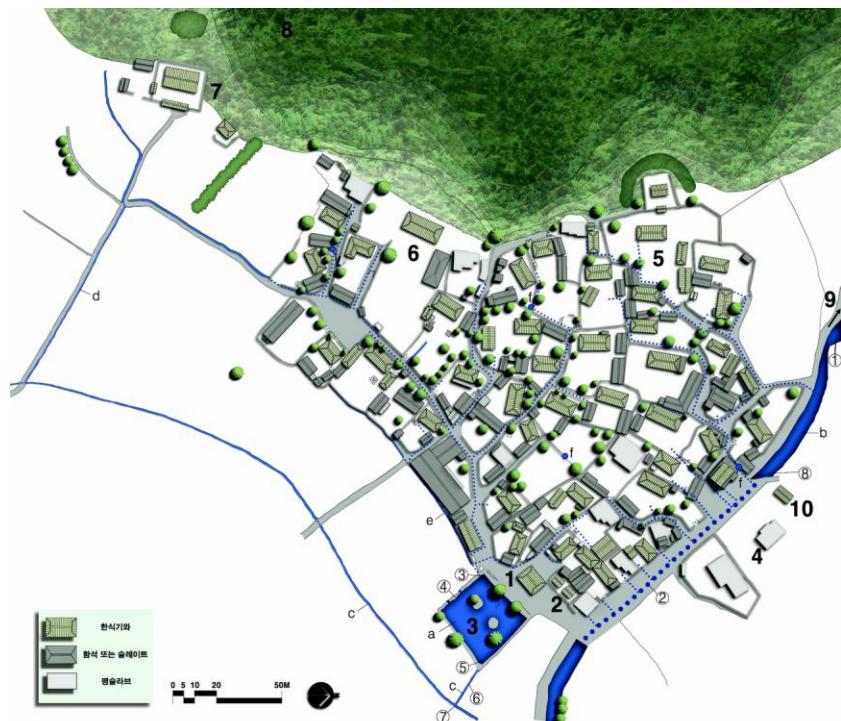


그림1. 원터마을 배치도

여기서는 마을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이루는 씨족마을의 공간구조를 정위성(定位性), 연계성, 상관성, 그리고 위계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마을의 전체 공간과 공간요소들의 관계는 주로 정위성과 연계성의 개념으로, 공간요소들 사이의 관계는 주로 상관성과 위계성의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런데 이 개념들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며, 같은 현상을 다른 시각으로 해석하는 개념으로서 서로 밀접히 관련된다.

3) 위상기하학이 연구하는 것은 도형의 크기·모양 등에 관계된 성질이 아니고, 도형을 이루고 있는 점·선·면끼리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를 보고 같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일이다. (김용운 외, 『공간의 역사』, 전파과학사, 1977, 214쪽) 위상기하학은 변하지 않는 거리나 각도, 면적을 문제삼지 않고 근접(proximity), 분리(separation), 계속(succession), 폐합(closure; 내부, 외부), 연속(continuity)이라는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위상기하학적’ 이란 기하학적인 절대위치가 일정한 원칙에 따라 변형되어도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변함이 없다는 의미이다.(Norberg-Schulz, Christian, *Intentions in Architecture*, Allen and Unwin, 1963, 43쪽) 한편, 장 피아제(Jean Piaget)는 모든 공간지각의 기본이 되는 위상기하학적 요소로 근접관계, 분리관계, 질서관계, 폐합관계, 연속관계 등 다섯 가지를 든다.

## 2절\_ 마을공간과 공간요소의 관계

### 1) 정위성(定位性)

사회관계에서 상하질서를 중시하는 한국 전통사회의 특성은 마을의 공간구조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마을공간은 균일하지 않은 장소의 연속적인 체계로 구성된다. 이에 따르면 마을공간에서 공간요소의 위치는 그 공간요소의 성격을 규정하는 하나의 요인이다. 정위성은 이러한 생각에 바탕을 둔 개념으로서 '마을공간에서의 위치에 따라 규정되는 공간요소의 성질'이라고 정의될 수 있다.

정위성은 마을공간에서 공간요소가 위치하는 장소가 달라지면 그 공간요소의 특성에도 차이가 있다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씨족마을의 공간은 정신적 위계성을 가진다는 일반적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또한 마을주민들의 사회 계층이 혈연관계상의 서열과 반상(班常)의 구분에 따라서 상이하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차이가 필연적으로 공간상의 차이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위성은 다음에 설명되는 위계성의 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정위성의 개념은 하나의 마을 안에서도 공간요소들이 상이점을 갖는다는 것 이므로, 주택을 지역적, 경제적, 혹은 문화적 산물로 보는 일종의 거시적 시각을 보완해주는 개념이다. 정위성의 개념에 따르면, 한 마을에서도 상대적 위치에 따라 주택의 유형이 달라질 수 있다.

씨족마을을 구성하는 데는 앞·뒤의 공간이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전후(前後)의 개념'이 강력하게 작용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정위성의 개념으로 마을의 공간구조를 파악할 때는 주로 마을 전(前) - 후(後) 공간의 차이에 따라 공간요소가 어떠한 차이를 형성하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sup>4)</sup> 씨족마을의 마을공간은 위상기하학적 위치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이러한 정신적 질서는 마을의 전후(前後) 공간이 갖는 의미의 차이로 표명된다. 한편, 이같은 질서의 공간적 표현을 마을을 이루는 기본적인 세 영역, 곧 개인 영역, 사회 영역, 의식(儀式) 영역과 관련지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전면(前面) : 위계가 낮음, 사회 영역, 속(俗); 주로 정자가 위치함
- 후면(後面) : 위계가 높음, 정신 영역, 성(聖); 주로 사당·재실·선산이 위치함

4) 현대의 주거단지 계획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온 근린주구(近隣住區, Neighborhood) 이론에서는 주거단지의 공간구성을 중심과 주변의 개념을 바탕으로 동심원적으로 설명한다. 그러나, 한국의 마을 구성을에서는 중심과 주변의 개념보다 '전후(前後)의 개념'이 더 강력하게 작용한다. 이러한 주거지 공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우리는 자신의 전통과 현실에 적합한 계획원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된다. 전통마을을 오늘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은 그러한 계획원리의 근거들을 찾아내는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후면의 사이에 주택들이 자리한 개인 영역이 위치한다. 그런데 이같은 전후의 위계는 일반적으로 지형의 높고 낮음과도 일치한다. 곧, 지형이 높은 장소는 정신적·사회적 위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 2) 연계성(Sequence)

공간요소들은 일대 일로 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일련의 요소들이 하나의 선적인 관계를 이루어 마을공간을 구성한다. 연계성은 공간요소들의 연속적인 연결관계를 의미한다. 그것은 사람의 이동에 의한 공간요소의 시간적 배열을 함축하고 있는 개념으로, 마을공간의 깊이감을 형성하는 원리이다. 그런데 공간요소를 연결하는 요소는 길이므로 연계성은 길과의 관계에서 파악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공간요소가 갖는 특성은 그것 자체의 논리에 한정되지 않고 그것에 이르는 경로와 관계되어 형성된다. 따라서 연계성의 개념으로 공간요소를 마을공간과 관계지어 공간구조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을공간 전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연계성은 다음과 같은데 이것이 바로 전체 마을공간의 축을 이룬다.

(마을어귀)→마을입구→정자(연못)→일반주택→종가사당→재실→선산  
←———— 사회 영역 —————→ 개인 영역 —————→ 의식 영역 →

개별 주택으로부터 마을입구, 공동시설, 또는 농경지로 이어지는 연계적 과정은 길의 체계와 밀접히 관련된다. 그러한 연결과정은 일반적으로 ‘주택입구→샛길→안길→공동시설(특히 亭子)→마을입구’의 순서로 구성된다. 주택에서 마을입구에 이르는 과정에 마을의 중심적 사회시설인 정자를 거치게 되므로 거주자들은 마을 안팎을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 접촉한다.



그림 2. 정자로 모이는 마을의 길 체계 (원터마을)

그림2에서 보듯이, 원터마을에서는 아름다운 정자인 방초정(芳草亭)이 마을의 중심적 사회시설인데 마을의 길들이 이 방초정에 모아지도록 길의 체계가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공간을 이동하면서 자연스레 정자를 거치게 되고 그러한 일상적인 움직임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다진다.

### 3절\_ 공간요소들의 상호관계

#### 1) 상관성

공간요소가 결합하여 전체 마을공간을 이루는 과정에서 앞서 형성된 요소는 후에 형성되는 요소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 또한 어떤 한 요소의 변화는 다른 요소들에 영향을 미친다. 마을공간에서 요소들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대요소를 고려하여 형성되고 변화되므로 일방적이기보다는 서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한다. 상관성이란 이러한 공간요소들 사이의 상호관련성, 곧 공간요소들이 만나는 원칙을 말한다. 전체 마을공간은 공간요소들이 결합되는 원칙에 의해서 특징지어지므로 공간요소의 결합원리인 상관성은 공간구조의 해석에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상관성의 기초적인 원리는 서로 근접성을 가지려는 ‘통합(Integration)’ 그리고 격리되어 독립성을 가지려하는 ‘분리(Segregation)’이다. 이 통합과 분리는 물리적인 연결과 단절로 나타나기도 하며 더욱 복잡한 건축적 처리로 표명되기도 한다. 사람들은 통합과 분리의 관계로 공간요소들을 배열함으로써 전체공간을 형성해 나가는데, 상관성은 요소들 사이에 이러한 통합과 분리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루는 개념이다.

일반적인 건축공간에서 두 개의 동등한 영역이 서로 직접 연결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동등한 두 영역은 그것들이 같이 접하고 있는 좀 더 공적인 영역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관련된다.<sup>5)</sup> 그러므로 동등한 두 영역의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분리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역 구조상의 단계(level)가 다른 요소들의 연결관계는 통합과 분리의 두 측면을 동시에 갖는 복합적인 관계인데, 그 요소들이 갖는 성격의 차이가 클수록 분리의 관계에 가까워진다. 이를테면 공적인 길과 사적인 주거공간의 관계는 그들 공간이 가지는 성격의 차이로 인하여 통합보다는 분리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마을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인 개별 주택들 사이는 기본적으로 분리의 관계이다. 그렇지만 씨족마을에서는 마을사람들이 혈연관계로 구성되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거주자들 사이에 일상적인 왕래가 잦다. 따라서 주택들 사이가 서로 통합될 필요성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서로 모순되는 요구들이 있는 것

5) Habraken N. J., *Transformations of the Site*, Awater Press, 1988, 164쪽

이다. 이에 대응하여 씨족마을의 개별 주택들은 독립적인 주생활을 확보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연결될 수 있는, 통합과 분리의 변증법적인 균형을 이루게 된다. 그림3은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의 ‘도래마을’에서 보이는 이러한 이중적 관계를 나타낸다. 인접한 여섯 집은 각기 명료한 자신의 영역을 가지면서도 샛문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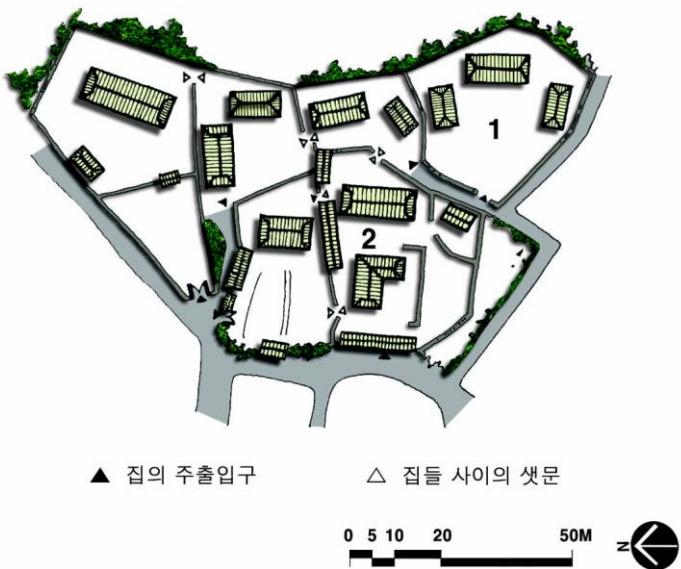


그림3. 주택 사이의 분리와 통합(도래마을)

## 2) 위계성

일반적인 위계의 개념은 동일한 종류의 요소 혹은 비교될 수 있는 요소들 사이에 존재하는 크기·형상·위치의 차이에 관한 것이다. 곧, 예외적인 크기, 독특한 형상, 중요한 위치는 어떠한 형태나 공간이 시각적으로 독특하게 보이도록 하며 하나의 공간조직에서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도록 하므로 위계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sup>6)</sup>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를 구비하여 격식을 갖춘 공간이나 건축물은 그렇지 못한 것보다 위계가 높다고 간주된다. 이러한 차이는 요소가 전체 마을공간조직에서 가지는 상대적 중요성과 기능적·형태적·상징적 역할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통마을에서 이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가치체계는 개인적이기보다 집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씨족마을은 성리학적 유교문화의 자연·공간관을 반영하고 있다. 성리학에서는 위계적 질서의 표현, 곧 예(禮)가 강조되며 이는 주거공간에서 위계성이나 차별성이라는 개념으로 자리잡는다. 이러한 개념이 마을 공간 또는 영역의

6) Ching, Francis D.K., *Architecture : Form, Space & Order*, VNR, 1979, 350 ~ 351쪽

구조화와 관련된다.

씨족마을의 공간 구성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뚜렷한 위계를 가지며, 특히 상징성을 가진 의례(儀禮)를 수용하는 요소가 중요시된다. 씨족마을의 위계성을 공간요소 별로 요약하면, 길은 ‘안길>샛길’의 위계관계를, 주택은 ‘종가>일반 주택’의 위계관계를 가지며, ‘공동시설>주택’의 위계관계가 성립된다. 각 공간요소 별로 위계가 높은 요소들은 마을 공간구조의 기본 틀을 이룬다.

### 3장 전통마을의 디자인 원리

#### 1절\_ 확장성과 다양성

##### 1) 확장성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를 풍미한 여러 사상들 중에서 전통마을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 것은, 마을이 조성될 당시인 조선 중기 이후의 지배이념이자 마을 건설자들이 신봉했던 성리학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하나를 꼽는다면, 성리학이 우리 사회에 도입되기 이전부터 우리의 주거공간 만들기에 큰 영향을 미친 풍수지리를 들 수 있다.

풍수에서는 하나의 산이 있다면, 비록 그 자리에서 보이지는 않으나 아주 멀리서 시발되어 죽 이어져온 산맥을 생각한다. 성리학에서는 인간을 소우주로 보고 그것을 주변 자연과 대우주로까지 확장시켜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풍수나 성리학에서는 자연을 생명을 가진 유기체로 보면, 흔히 천인합일(天人合一)로 표현되듯이, 자연과 인간의 합일을 추구한다. 이렇듯 풍수와 성리학의 자연관은 모두 광역적이고 유기적인 것이 특징이다.

풍수와 성리학의 자연관은 매우 넓은 시각에서 마을을 구성하는 확장성의 개념을 넣었다. 그래서 조상들은 마을을 독립되고 자족적인 정주(定住) 단위로 보지 않고, 주변 지역과 유기적이고 구조적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 확장성의 개념에 따라 마을의 공간 범위는 시각적으로 또 관념적으로 확대되었고, 마을의 구성요소들은 주변 경관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다.

확장성의 개념이 극적으로 구현된 예가 대구 동구 둔산동의 ‘옻골마을’이다. 옻골에서 마을은 넓은 주변 지역을 경영하기 위한 베이스캠프로 간주되었으며, 그 결과 마을영역 자체는 최소화되었다. 그리고 많은 전통마을에서 볼 수 있는 정자(亭子) 또한 이런 확장성의 개념이 만들어낸 요소다. 마을 밖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지점에 세워진 정자는 마을영역을 주변 경관까지 시각적으로 확장시키는 매개물로서 의미를 갖는다.

마을 조성에 사용된 많은 개념들이 이런 확장성을 갖는다. 그런데 확장의 중심인 시작점은 바로 나 자신, 곧 주체이다. 건물을 배치하는 데도 이런 생각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건물이 밖에서 어떻게 보일까 하는 문제보다 건물 안에서 무엇이 내다보이는지가 중요했다. 보통은 건물 앞 먼 곳에 잘생긴 산봉우리가 보이는데, 그것을 안대(案帶)라고 한다. 조상들은 안대를 기준으로 건물을 배치했다. 안대의 존재는 관찰자인 남이 아니라 거주자인 나를 중심으로 건물을 지었음을 의미한다. 이런 확장의 시각은 건축의 주체성과 직결된다.

그런데 이런 광역적 사고 또는 확장성의 개념 때문에 혹시 주거공간 자체를 세밀히 만드는 일은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그렇지는 않다. 작은 척도의 문제가 큰 척도의 문제와 결부됨으로써 세세한 부분이 좀 더 복합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을 뿐이다. 말하자면, 마을 내부의 세세한 구성과 디자인에도 마을 밖의 요소들이 영향을 미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을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을 자체뿐 아니라 그 주변을 널리 살필 필요가 있다. 마을 내부에서 주변의 자연을 살피고, 반대로 주변의 산에 올라 마을을 포함한 넓은 지역을 둘러보면 마을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진다.

## 2) 다양성

전통마을은 그 모양만큼이나 그것이 주는 교훈이나 아이디어도 다양하다. 다양한 공간과 장소를 갖춘 전통마을은 특히 미래의 설계자들이 놓쳐서는 안 될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전통마을의 밑바탕을 이루는 사상은 공통적이었는데도 마을마다 서로 다른 재미있는 공간과 장소가 조성된 것이 기이하게까지 느껴진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같은 모양의 마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마을이 처한 현실 조건에 맞는 서로 다른 개념이 모색되었기 때문이다. 마을이 자리 잡은 땅의 조건,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조건에 따라 매우 독특한 개념이 구상되었다. 토양에 적합한 씨앗이 뿌려진 것이다. 그리고 같은 씨앗도 토양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정한’ 꽃나무와 꽃들을 만들어냈다.

조선시대에는 마을을 만드는 개념을 제시한 고법들이 있었다. 주거학 교과서라 할 이중환(李重煥, 1690~1752)의 『택리지(擇里志)』와 서유구(徐有栗, 1764~1845)의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1485년(성종 16)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 주자가 중국 고대의 예제(禮制)를 재해석하여 새로운 윤리체계로 제시한 『주자가례(朱子家禮)』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기성의 개념을 그대로 구현하기 힘들 경우에는 과감히 그것을 현실 조건에 맞도록 변형시켰다. 그래서 우리의 마을과 그 안의 집들은 교조적 이지 않으며, 예측하기 힘든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되었다. 이런 사례는 사당에 갈 때 남성 영역인 사랑채에서 여성 영역인 안채를 거치는 일이 없도록 사당

의 위치를 정함으로써 안채의 동쪽에 사당을 두도록 한 『주자가례』의 규정을 어긴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의 ‘한개마을’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사례에서 조상들이 얼마나 현실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그것에 공간적으로 대응했는지를 보게 된다.

## 2절\_ 주택(한옥)-마을 체계

### 1) 주택-마을 체계

주택과 주거지가 공간구조적으로 관련되지 못하는 것은 현대 주거지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주택과 주거지가 정합성을 갖지 못하며,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생활의 장소로 효율적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예가 많다.

마을공간은 집과 길 등을 공간요소로 하는 하나의 체계(system)이다. 마을을 체계의 전체라고 하면 집, 곧 한옥은 그것을 이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부분과 전체가 이루는 관계를 구조라고 할 때 한옥과 마을은 공간구조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을의 패턴은 주택의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마을의 형태는 주택들이 밀집 배치되는 집촌(集村)과 분산·배치되는 산촌(散村)으로 나뉘는데 이러한 차이는 주택의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집촌에서도 마을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용되는가 하는 점은 주택에 영향을 준다. 또한 마을의 형태는 생활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주택과 거주방식은 독립적으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와 직접 관련되는 마을과 하나의 체계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라포포트는 이것을 ‘주택-정주지(house-settlement) 체계’라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sup>7)</sup>.

이런 라포포트의 개념은 한옥과 마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데도 유용한 틀이 된다. 주택(한옥)과 마을의 구조적 관계를 라포포트의 용어를 빌어 ‘주택(한옥)-마을 체계’라고 할 때 그것은 공간구조적 체계이기도 하고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의 체계이기도 하다.

한옥-마을의 공간구조적 체계란 한옥과 마을공간이 일정한 원칙에 따라 결합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러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서 볼 때 그런 원칙은 매우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이 원칙은 마을공간에서 한옥이 지어진 대지가 갖는 위상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하므로, 원칙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획일적인 한옥의 구성이 아니라 반대로 개별적인, 따라서 매우 다양한 한옥의 구성이다. 곧, 한옥-마을 체계에 의해 한옥은 더욱 더 강한 개별성을 갖게 된다.

---

7) Rapoport, *House Form and Culture*, 1969, 69 ~ 73쪽

공간적 실천(spatial practice)이란 공간이나 장소와 관련된 활동, 또는 공간이나 장소를 이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쉬니클로스(Schneekloth)와 프랭크(Franck)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작물을 재배하고, 산책하고, 신을 경배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그것에는 행위자, 공간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상호작용의 특수한 패턴, 사용된 물건, 시간 등등이 포함된다.”<sup>8)</sup> 따라서 그것은 ‘공간이용방식’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이 사회적 실천(social practice), 지적 실천(intellectual practice) 등의 용어와 나란히 쓰일 때가 많으므로 필자는 ‘공간적 실천’이라고 옮긴다.

라포포트가 주장하듯이, 마을공간의 이용방식, 곧 공간적 실천은 주택의 형태에 영향을 준다. 마을에서 사회적 접촉이 일어나는 장소가 가로와 광장 등 마을공간인가 아니면 단위주택의 내부인가에 따라서 단위주택을 구성하고 이용하는 방식이 영향을 받는다. 마을공간에서 사회적 접촉이 활발히 일어난다면 모든 집들에 손님을 접대하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반대로 마을공간에서 사회적 접촉이 원활히 일어나지 못할 경우, 단위주택에 응접실과 같이 그같은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2009년 8월 9일 ~ 12일에 ‘한옥을 보는 서구의 시각’이라는 국제 학술행사를 진행하면서 쉬니클로스(Lynda Schneekloth), 쉬블리(Robert Shibley) 등 미국의 교수들과 한국의 전통마을에 대해 토론할 기회가 있었다. 그때 미국 교수들은 서구의 정주지에 비해 한국의 마을에는 사회적 공간이 양적으로 적은 것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필자는 논산 명재고택의 너른 사랑마당을 예로 들며, 한옥에 마을의 공동공간이 결합되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한옥의 사랑채 영역은 한 가족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의 활동을 담는 공간이다. 따라서, 명재고택에서 볼 수 있듯이, 사랑채 영역은 폐쇄적이 고 내향적인 안채와 대조적으로 개방적이다. 명재고택의 사랑채의 누마루는 사회적 접촉의 장소이며, 공동체의 공간인 마을로 시선이 열린다. 넓고 개방적으로 조성된 사랑마당 또한 마을 공동공간의 성격을 갖는다. 도시적 맥락에 지어진 누각에서도 이런 누마루의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런 누각은 도시의 공동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표상하고 있다.”<sup>9)</sup>

요컨대, 전통마을에서 공간적 실천은 주택과 마을공간으로 나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구조적으로 연계된 체계 속에서 일정한 논리를 가지고 일어난다.

8) Schneekloth, Lynda & Franck, Karen 편, *Ordering Space: Types in Architecture and Design*, VNR, 1994, 24쪽

9) 한필원 등 엮음, *A Western Perspective to Hanok*,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2009

## 2) 마을마다 다른 주택(한옥)-마을 체계의 원칙

마을 속에서 한옥은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지만, 한옥-마을 체계의 원칙은 마을의 모든 한옥들에서 거의 예외없이 지켜진다. 마을 속에서 한옥을 구성하는 동일한 원칙을 공유함으로써 마을공간이 강한 논리성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런 원칙의 공유는 마을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는 데 기여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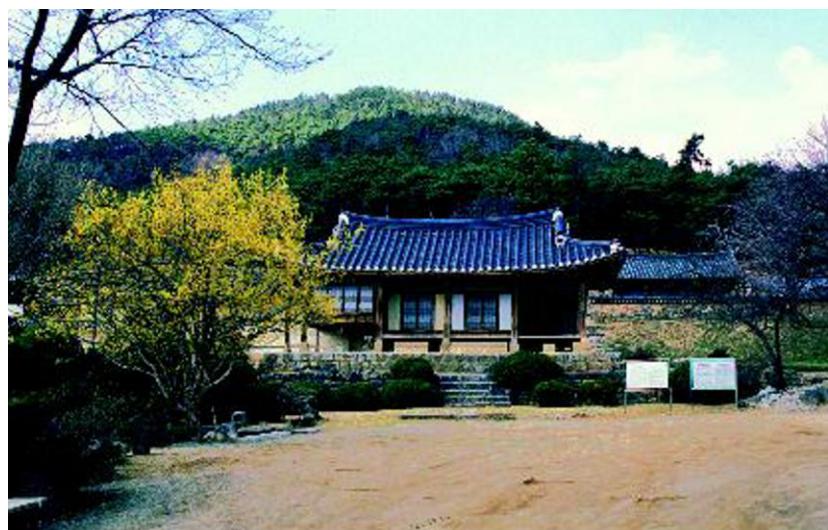


그림 4. 명재고택의 사랑채 영역

한옥-마을 체계의 원칙이 얼마나 엄격히 지켜졌는지는 한개마을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꼬장꼬장한 선비의 마을인 한개에서는 ‘여성공간의 은닉’이 마을공간을 조성한 하나의 원칙이었다. 그래서 한개마을에서 여성공간은 가장 멀리, 깊숙이 숨겨진다. 한개의 집들은 지형이 낮아져 앞이 열리는 남서쪽을 향하고 있으며 집안에서 보아 왼쪽 혹은 오른쪽의 측면으로 진입한다. 어느 경우든 안길·샛길·사랑채·안채의 배열순서는 틀림없이 지켜지고 있다. 다만, 주거지의 끝에 있는 한주종택과 월곡택에서는 샛길이 생략되었다. 이러한 공간의 연계과정에서 가장 안쪽에 놓이는 것은 안채이다. 그리고 안채 중에서도 가장 깊숙이 있는 공간은 여성의 활동공간인 부엌이다. 따라서 부엌의 위치는 동쪽이나 서쪽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집으로 진입하는 샛길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변함없는 원칙은 부엌을 마을공간(진입로)에서 가장 먼 곳에 둔다는 것이다.

이런 원칙에 따라, 진입로인 샛길이 서쪽에 있는 교리댁·북비고택·월곡댁에서는 안채의 부엌이 모두 동쪽 끝부분에 있고, 동쪽에 진입로(안길)가 있는 하회댁과 한주종택에서는 부엌이 진입로에서 가장 먼 서쪽에 위치한다. 하회댁의 경우 진입로에서 가장 먼 지점은 ㄷ자형의 안채에서 서쪽의 껌임 부분이다.

이같이 철저히 공간구성의 원칙을 따르려면 어떤 공간을 절대적 위치에 고정할 수 없다. 어떤 공간의 위치는 그 공간의 성격 그리고 집이 놓이는 구조적 맥락에 따라 상대적으로 정해지기 때문이다. 한개마을 집들에서 사당이 놓인 위치는 이런 상대적 원칙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17세기 중반에 들면서 『주자가례』의 내용은 우리 사회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우리의 전통 주거문화는 그로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sup>10)</sup>. 주자가례에는 가묘를 정침(正寢)의 동쪽에 두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선 후기에는 중인 이상 계급의 주택에서는 사당을 안채의 동쪽에 둔 것으로 보인다.<sup>1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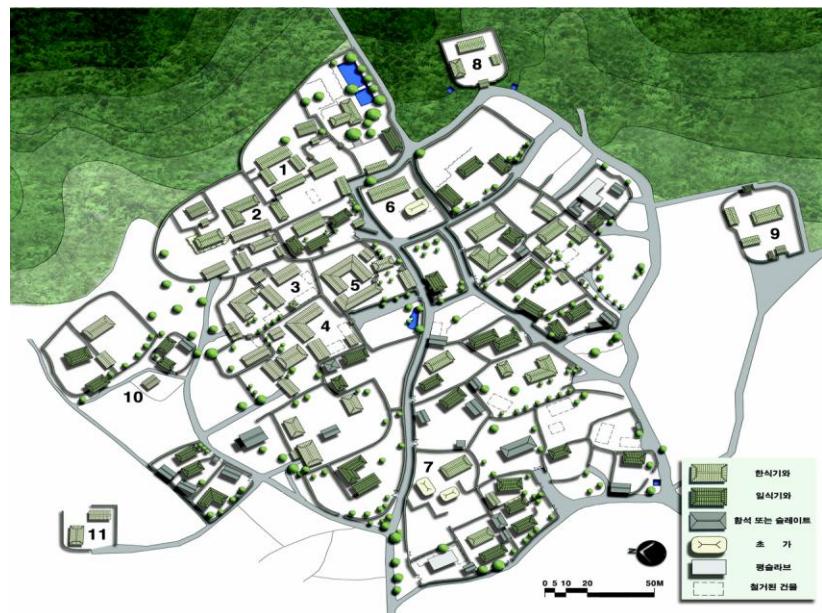


그림5. 한개마을 배치도

(변형이 심한 '아랫막' (도면의 아래쪽) 부분은 이 배치도에 표현되지 않았다.)

- 1.한주종택 2.월곡댁 3.북비고택 4.교리댁 5.하회댁 6.극와고택 7.진사댁 8.첨경재 9.월봉정
- 10.돈재이공신도비 11.서륜재

그러나, 놀랍게도, 다른 곳도 아니고 주자의 학문을 잇는 학자들의 마을인 한개마을에서 사당의 위치에 대한 『주자가례』의 지침은 지켜지지 않았다. 집의 동쪽에 있는 진입로로 들어가는 한주종택에서는 사당이 정침, 곧 안채의 동쪽에 배치되었지만, 서쪽의 진입로로 들어가는 교리댁, 북비고택, 그리고 월곡댁에서는 사당영역이 사랑채의 후면에 조성되거나 안채와 사랑채 사이의 후면에 놓임으로써 사당이 안채의 서쪽에 오게 되었다. 그 이유는 앞서 이야기한 남녀공간의 분리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당시 남자 주인은 사당에 모셔진 조상의 신주에 아침저녁으로 인사를 드렸기 때문에, 사당을 남성의

10)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1997, 235 ~ 236쪽

11)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219쪽

영역인 사랑채와 근접시킨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남성이 여성의 영역인 안채를 거쳐 사당으로 가야 하는 모순이 생겼을 것이다. 한개의 선비들은 교과서의 원칙이 실제의 지형조건이나 길 체계와 괴리가 있음을 고민하였을 것이다. 결국은 교과서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주택(한옥)-마을 체계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 결과 사당의 위치에 관한 주자가례의 지침을 어긴 집이 여럿 나오게 되었다.

다른 예로, ‘도래마을’에서 각각의 주택은 지방도에서 안길(마을 주도로), 다시 안길에서 샛길(주거 접근로)을 거쳐 진입된다. 이들 각각의 길들은 직각으로 연결되므로 지방도에서 오자면 동선을 적어도 두 번 직각으로 꺾어야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원칙을 지키기 위해 마을공간의 안길에 직접 면 할 수밖에 없는 집은 일부러 자신의 대지 안에 샛길을 조성함으로써 한옥과 마을공간의 연결 원칙을 고수하기도 한다(그림6에서 원으로 표시된 한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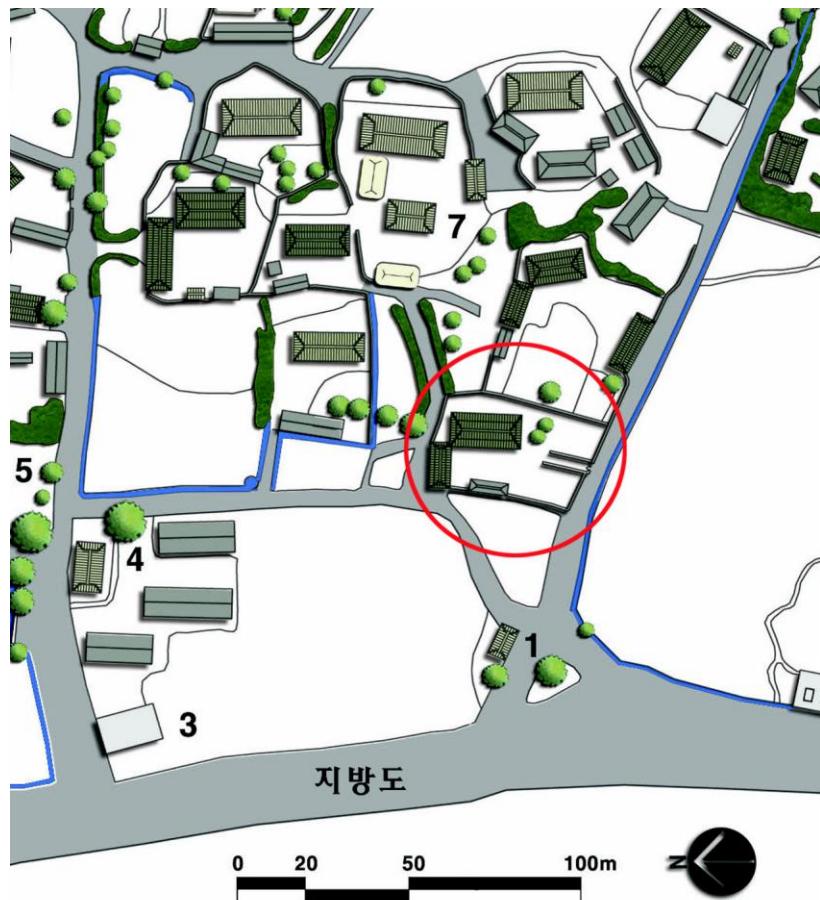


그림6. 도래마을 배지도(일부)

자료 :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제2차 농촌주거환경 조사연구보고서』, 한샘, 1989

### **3절\_ 공동성**

우리 사회에서 공동체의 모습과 그 역사를 잘 살펴볼 수 있는 곳은 전통마을이다. 한국의 전통사회는 가족공동체가 모여 마을공동체를 이루어 생활하는 공동체 사회였다. 마을은 공동체 생활의 공간 단위이며, 공동체 생활을 수용하는 장소는 마을공간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특히 조선 후기에 문중의 사회 조직을 토대로 한 혈연·지연 공동체인 씨족마을에서 공동체의 공간과 건축은 중요한 위상을 갖는다.

한국의 전통마을에서 공동체 공간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만나 교류하는 ‘사회 공간’, 그리고 죽음에 관련된 다양한 의례행위를 매개로 주민들이 결합하는 ‘의식(儀式)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 두 공간은 안길, 곧 마을공간의 뼈대를 이루는 주 도로로 연결된다. 그리고 안길은 그 자체가 공동체적 성격을 갖는다.

전형적인 씨족마을에서 사회 공간은 마을공간의 전면, 길과 물길이 모이는 지점에 위치한다. 길은 사회 공간의 중심인 정자로 모아지며 물길은 그 앞의 연못으로 모인다. 사회 공간의 경계는 대부분 개방적이다. 의식 공간은 마을 주거지의 최후면, 혹은 주거지에서 뒤로 어느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곳은 자연지형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마을의 거주공간 중 가장 높은 곳에 해당한다. 전통마을의 공간은 많은 경우 이들 사회 공간과 의식 공간을 두 꼭짓점으로 하는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곧, 공동체 공간의 위치는 마을공간의 기본 골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마을공간에서 중심의 개념보다 전후(前後)의 개념이 발달한 것도 전면의 사회 공간과 후면의 의식 공간을 잇는 축성(軸性)에 기인한다.

마을에서 길을 따라 집의 전면으로 움직이면 사회 공간에 이르며, 후면으로 거슬러 이동하면 의식 공간에 다다른다. 주민들에게 전자는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움직임이며, 후자는 의식적(意識的)·의도적으로 움직이는 비일상적 움직임이다. 전자는 현재의 사회적 삶을 향한 움직임이며, 후자는 과거 혹은 죽음으로 향하는 움직임이다. 이로써 전통마을은 삶과 죽음의 측면에서 모두 공동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 공간이든 의식 공간이든 공동체의 공간은 ‘수렴 후 발산’이라는 성격을 갖는다. 사회 공간에서는 낮은 지점의 개방된 공간에 자리잡은 정자로 동선이 수렴하고 다시 마을 앞의 개방된 공간으로 공간과 시선이 발산한다. 한 점으로 수렴하고 사방으로 발산하는 성격이다. 여기서 발산은 특정되지 않은, 불확실한 미래의 시점을 의미하며, 이런 발산을 위한 건축적 장치는 사방이 개방된, 정방형에 가까운 정자 건물이다.

의식 공간에서는 높은 지점의 위요된 공간에 자리 잡은 재실로 동선이 수

렵하고 뒤의 산 또는 계곡으로 공간과 시선이 발산한다. 한 점으로 수렴하고 한 방향으로 발산하는 성격이다. 여기서 발산은 대과거 혹은 시원(始原)을 의미하며, 이런 방향성 있는 발산을 위한 건축적 장치는, 건물의 중앙에 앞뒤로 개방된 대청을 둔 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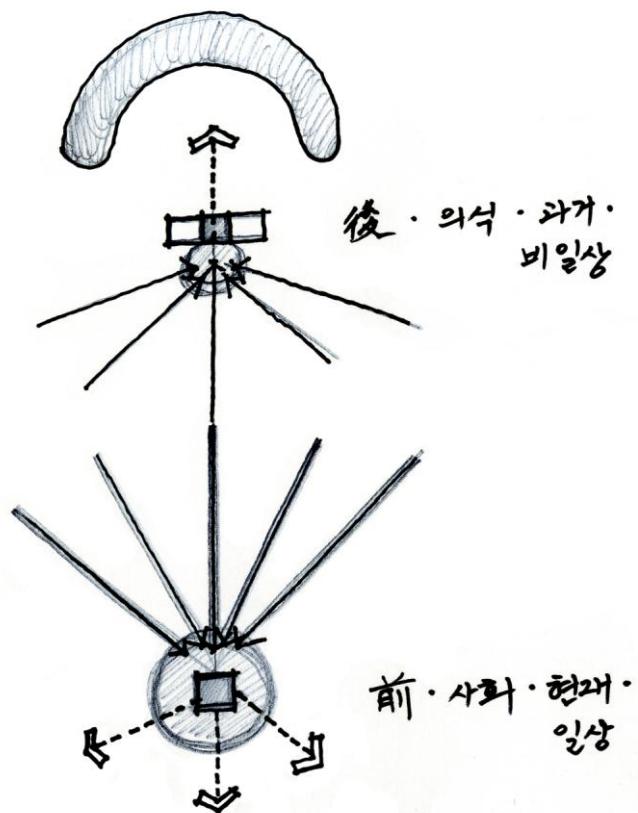


그림7. 전형적인 씨족마을의 공동체 공간 개념

마을에서 공동체 공간의 발달 정도, 그리고 그것이 마을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그 마을에서 영위되는 생활의 공동성 또는 통합성을 반영한다. 예로, ‘원터마을’에는 공동체 공간이 잘 조성되어 있으며, 마을공간은 한 곳의 사회 공간과 두 곳의 의식 공간을 잇는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해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의 ‘양동마을’에서는 문중의 지파(支派)가 경영하는 정자는 많지만 마을 주민이 모두 함께 사용하는 마을공동체의 공간은, 그것이 사회 공간이든 의식 공간이든, 찾아볼 수 없다. ‘원터마을’은 하나의 문중(연안이씨 부사공파(副使公派))을 토대로 한 강한 공동체 생활의 장인 반면, ‘양동마을’은 두 문중(월성손씨·여강이씨)의 갈등구조 속에서 마을생활이 통합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림8. 원터마을의 재실(영모재)과 선산  
의식 공간인 재실은 마을 주거지의 후면, 산으로 둘러싸인 장소에 위치한다.

#### 4절\_ 환경친화성과 지속가능성

##### 1) 전통마을에서 얻는 환경친화성의 교훈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에는 인간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전통이 있었다. 이렇게 인간과 자연을 통합적으로 인식하는 사회에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은 그런 말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당연한 것이었다. 산업화 이전에 조성된 한국의 전통마을도 그러한 사고와 가치관을 바탕으로 형성·발전되어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통마을에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혜가 농축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오늘날에 비하면 전통사회에서는 자원과 에너지, 그리고 기술이 현저히 제한되었다. 그러한 조건에서 인위적으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전통사회는 자연환경에 순응하여 그것을 조절하면서 거주공간을 형성했고, 에너지와 기술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잘 유지·관리될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드는 방안을 끊임없이 궁리했다. 전통마을은 바로 그러한 모색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그곳에는 환경생태적인 합리성이 자연스레 내포되어 있다.

전통마을의 환경친화성을 논하기에 앞서 환경친화적인 거주지가 무엇을 뜻하는지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 필자가 풍수지리와 환경생태학과 같은 동서양의 이론들, 그리고 현대에 여러 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계획요소들을 두루 살펴본 결과, 환경친화적 거주지는 기본적으로 자연조건에 대한 적응성, 자원의 순환, 에너지 절감 시스템 등 세 가지 요건을 갖추

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여기서 이들 요건을 좀 더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자연조건에 대한 적응성’ 이란 부지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자연생태계를 최대한 유지하고 그에 적응하는 건설과정을 거침으로써, 거주지의 건설과 유자관리가 주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거주자가 겉보기에 훌륭한 자연조건을 갖추었다 해도 기존 생태계를 파괴하는 개발과정을 거쳤다면 그 거주자는 환경친화적이라고 볼 수 없다. 반대로, 토지·수공간·녹지 등 자연생태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을 풍부하고도 유기적으로 결합해 거주지를 조성한다면 그것은 환경친화적 거주지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전통마을의 환경친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을의 토지 이용, 그리고 마을공간에 녹지와 수공간 등 자연요소를 도입한 방식이 주어진 자연조건에 어떻게 적응했는가를 살피는 일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자원의 순환’ 이란 거주생활에서 자원의 소모가 최소화되고 거주자가 자체의 순환기능을 갖춰 일정한 재생기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자가 자기 충족적일수록, 곧 거주지 내부에서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공급받고 대지와 건축이 자체 순환기능을 잘 갖출수록 거주지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줄어든다. 이런 측면에서, 마을에서 사용된 수자원, 그리고 마을에서 발생한 유기성 쓰레기와 농업생산 부산물이 순환되고 재활용되는 방식을 관찰하는 것도 마을의 환경친화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마지막의 요건은 거주자를 하나의 에너지 시스템으로 보자는 것이다. 전통마을은 대개 남쪽 전면을 제외한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이는 완경사지에 위치한다. 이럴 경우, 여름에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므로 비교적 서늘하다. 대개 마을 앞에는 시내가 흐르고 연못까지 있어, 수분이 주변에서 기화열을 빼앗아 증발하므로 불어오는 바람의 청량감이 더해진다. 그래서 예전에는 에어컨이 없어도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었다. 반면, 겨울에 마을 공간은 비교적 온난하다. 낮에 일조를 많이 받고 밤에는 복사열을 받으며, 차가운 북서계절풍은 지형과 조경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같이 전형적인 전통마을은 에너지가 절감되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따라서 그것을 환경친화적 거주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세 항목들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의존적이다. 예컨대, 자원이 순환되면 새로운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원을 획득하고 생산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절감된다. 곧, 둘째와 셋째 항목은 관련이 있다. 또한 거주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거주지가 자연조건에 잘 순응해야 한다. 거주지를 조성하고 유지·관리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여 자연조건을 극복하는 현대의 방식과 달리, 전통마을에서는 자연조건에 순응하고 미기후(微氣候)를 조절함으로써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식들을 활용해왔다. 특히 여러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불가피하게 환경적으로 불리

한 입지에 자리 잡은 마을에서는 미기후를 조절하여 냉난방 부하를 줄이는 방식들이 더욱 다양하게 발견된다. 곧, 셋째 항목은 첫째 항목과 직접 관련된다. 이렇게 서로 긴밀히 연결되는 세 요건을 기준으로 전통마을에 깃든 다양한 환경친화적 방식과 아이디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 2) 풍수와 비보: 거주공간의 계획학

전통마을의 환경친화성을 형성한 가장 중요한 이론이자 방법론은 풍수지리다. 그것은 동양적 사유의 근간인 음양오행론(陰陽五行論)을 바탕으로 형성된 환경 해석 방법이며 환경계획 이론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음양오행론은 음양과 오행으로 자연의 섭리를 설명하는 동양의 철학이다. 음양은 태극(太極)에서 분파된 상대적 개념이고, 오행은 금목수화토(金木水火土)의 다섯 가지 물체로써 자연의 현상과 이치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전통 사회에서 이 음양오행론은 철학의 범위를 넘어 의학·수학·풍수지리·예술 등 광범위한 분야의 이론을 구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풍수지리는 적용 대상에 따라 죽은 사람의 집, 곧 묘지를 다루는 음택론(陰宅論)과 산 사람의 집을 다루는 양택론(陽宅論)으로 나뉜다. 흔히 풍수사상은 통일신라시대 승려인 도선(道洗, 827~898)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으나, 이미 그 이전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으로 추정된다.<sup>12)</sup> 아무튼 풍수지리가 우리나라에 소개된 뒤로 그것은 도시와 마을의 구성에서, 택지를 선정하고 실(室)을 배치하고 대문 위치를 정하는 데 이르기까지 거주지와 주택을 조성하는 행위의 전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왔다.

한마디로 풍수를 정의하기는 어려우나, 궁극적으로 이상적인 환경조건을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이상적인 땅을 풍수지리에서는 명당(明堂)이라고 한다. 명당은 지맥(地脈) 중 기(氣)와 정(精)이 가장 잘 모인 곳인 혈(穴)의 바로 앞에 있는 곳으로, 모든 건축 행위에서 혈과 명당은 가장 중요한 장소이다. 주택으로 보자면, 혈에 본채를 놓고 명당에 안마당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풍수의 주요한 구성요소는 산(山)·수(水)·방위인데, 이것들로 이루어지는 명당의 조건과 관련 용어는 그림9와 같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이상적 대지와 현대의 환경심리학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거주 장소를 비교하면 유사한 면이 발견된다. 한마디로 이 두 이론이 추구하는 것은 모두 편안하게 둘러싸여 영역성이 뚜렷한 장소이다. 그림9에서 보듯이 명당은 전후 방향의 축(軸)을 가지고 산으로 잘 둘러싸여 아늑한 영역이 만들어지는 장소다. 이러한 명당은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자연조건을 갖춘 곳이다. 영어에서 ‘집에 있다(at home)’는 말이 동시에 편안함을 의미하듯, 집과 편안한 느낌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주거에서 안락함을

12) 최창조, 『한국의 풍수사상』, 민음사, 1984, 46쪽

찾는 것은 인간의 공통적 심리다. 명당은 바로 자연요소들에 의해 편안한 소속감을 느끼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풍수지리의 또 다른 특징은 그것이 거주공간과 주변환경의 관계를 중시하며 주변환경에 대해 상징적인 해석을 한다는 점이다. 풍수를 따른 전통사회의 거주자들은 거주지와 그 주변 경관에 대해 풍수적인 해석을 공유했다. 예를 들면 ‘낙안읍성’ , ‘하회마을’ , ‘왕곡마을’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등에서는 행주형(行舟形)이라 하여 마을의 형상이 배에 비유되는데, 그런 마을들에서는 마을공간에 우물을 파는 것이 금지된다. 배에 구멍이 나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마을 경관에 대한 해석을 공유하는 것은 마을의 공간질서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풍수와 달리 비보(裨補) 풍수의 개념이 발달했다. 풍수연구가 최창조 선생은 비보풍수를 중국 풍수와 구별되는 한국 풍수의 독자적 특성으로 본다. 비보란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곳을 보완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상적인 장소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비보 풍수는 풍수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인공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주어진 환경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여 활용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적극적인 개념이 담겨 있는 비보풍수로부터 풍수지리가 갖는 환경계획적 측면들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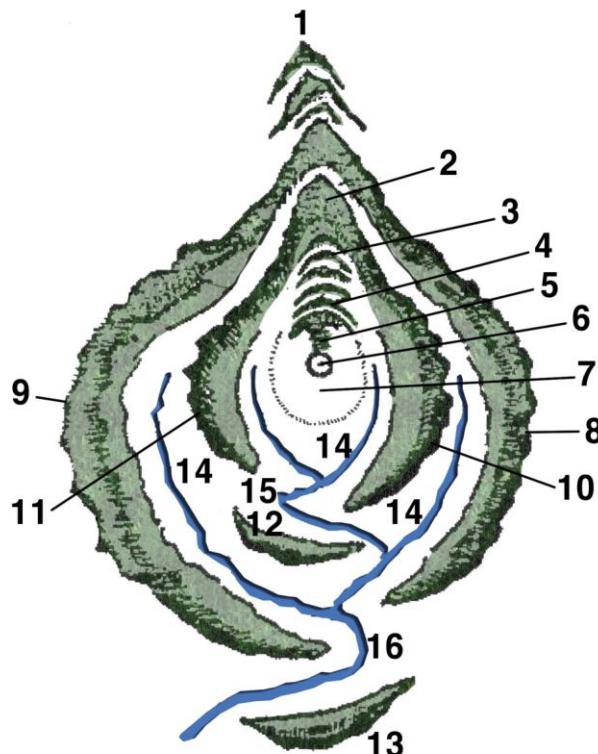


그림 9. 풍수지리의 이상적 국면(局面)

1. 조산(祖山), 종산(宗山): 혔의 뒤로 멀리 떨어진 산들

2. 주산(主山): 헐 뒤의 높은 산
3. 입수(入首): 주산으로부터 헐로 들어가는 지점
4. 두뇌(頭腦): 입수와 헐과의 접합지점
5. 미사(眉砂): 헐의 바로 뒤의 약간 솟아오른 부분
6. 헐(穴): 지맥(地脈) 중 기(氣)와 정(精)이 가장 잘 모인 곳
7. 명당(明堂): 헐의 바로 앞, 청룡백호가 감싸고 있는 곳
8. 좌청룡(左青龍): 왼쪽의 산
9. 우백호(右白虎): 오른쪽의 산
10. 내좌청룡(內左青龍)
11. 내우백호(內右白虎)
12. 안산(案山): 명당 앞에 가까이 있는 낮은 산
13. 조산(朝山): 안산 너머 멀리 있으면서 높고 큰 산
14. 수(水)
15. 내수구(內水口): 국(局)의 인쪽에서, 물길이 합류하여 밖으로 나가는 지점
16. 외수구(外水口)

전통마을에서는 안산(案山)이 취약할 때 동수(洞數)라고 불리는 수목군을 마을 전면에 조성해놓은 예가 많다. 또한 겨울철의 주된 바람 방향에 동수를 조성하여 방풍의 효과를 얻기도 한다. 이것들은 풍수적인 약점을 보완하는 비보 풍수의 대표적 예인데, 여기서 우리는 자연요소로 자연을 순화함으로써 인간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그림10. 하회마을의 동수



마을의 북서쪽 경계부에 선적으로 나무를 빼곡히 심어서 강쪽으로 허한 지세의 약점을 보완하고 방풍의 효과를 얻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듯, 풍수지리는 오늘날 주술적으로 이용됨으로써 오히

려 거주환경에 대한 가치관을 혼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풍수지리의 본질적 내용을 잘 살펴보면 현대적인 교훈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거기에는 자연과 조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동아시아의 자연관이 응축되어 있으며, 환경심리학적 고려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환경계획의 요소들이 잘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풍수지리를 현대 환경계획의 관점에서 재조명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 3) 지속가능성

환경친화성과 깊이 관련되는 용어로 최근 많이 사용되는 것이 ‘지속가능성’이다. 말 그대로 오늘날의 거주지가 미래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은 영어의 ‘sustainability’를 번역한 말인데, 이 단어는 널리 쓰이기 시작한 지 10년도 채 안 되어 이미 학제적인 전문용어이자 일상생활의 유행어가 되었다.

에너지가 비교적 저렴하게 공급되고 설비체계가 발달하면서 그간 인간의 거주공간은 환경적인 면보다는 경제적 논리로 만들어지고 사용되어왔다. 그 결과,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었으며, 그에 따라 개발과 환경보존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일어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가 열렸고, 그때 개발과 환경보전을 대립적으로 여기던 관념을 대신하여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개념이 제시되었다.

거주지가 지속가능하려면 그 안에서의 삶이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환경친화성은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하나의 중요한 부문이며, 앞서 말한 풍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장소를 찾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지속가능성을 이루는 부문들이 서로 배치되는 일도 있다. 예컨대, 환경적으로는 지속가능하나 경제적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성이란 그것을 이루는 여러 부문의 요소들을 서로 조절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성이 최신의 개념으로 전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실은 우리에게 그것은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놀랍게도 250여 년 전에 발표된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거주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개념과 거의 일치하는 내용들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이중환은 두 차례 귀양을 가고 떠도는 생활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지속가능한 거주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그는 지리(地理)·생리(生利)·인심(人心)·산수(山水)를 지속가능성의 요건으로 들었으며 그것들을 조화롭게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지금 전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지속가능성의 개념 그대로다. 그러면 이중환이 제시한 지속가능성의 요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땅의 흐름을 말하는 ‘지리’는 앞서 소개한 풍수지리적 입지조건을 말한다. 요즘 이야기로 하면 환경적 지속성을 뜻한다.

다음으로, ‘생리’란 이로움을 얻는 것이니 경제적 지속성을 말한다. 이중 환은 사람이 바람과 이슬을 먹고살 수 없으며 재물이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는 것이 아니니, 농업과 상업에 편리한 곳을 거주지로 택하라고 권한다. 그는 또한 유통을 위해 교통의 중요성도 강조한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전통사회의 주거관에서 실용적인 측면이 결코 경시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 ‘인심’이란 사회생활의 측면, 곧 사회적 지속성을 말한다. 여기서 이중환은 집터를 선택할 때는 풍속과 인심을 살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처음에 ‘맹모삼천지교(孟母三遷之教)’를 예로 들면서 부드럽게 논지를 펴던 그는 붕당의 갈등으로 사대부 마을의 인심이 사나워진 것을 자세하고도 신랄하게 꼬집는 것으로 ‘인심’ 부분을 마무리한다.

마지막으로 ‘산수’는 환경심리적 측면을 말한다. 그는 집 근처에 정서를 함양할 수 있는 자연환경이 있어야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산수가 좋은 곳은 생리가 박한 곳이 많음을 지적하면서, 우선 기름진 땅이 있는 곳을 고르고 일정한 거리에 산수 좋은 곳을 마련해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치가 좋은 곳은 거주지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도 때로 찾아가 휴식을 취할 수 있지 만 경제활동은 일상적이기 때문에 경제적 조건을 더 중시한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주거는 『택리지』의 전통에서 멀어져 지속가능성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20년이면 당당하게 자신의 집을 철거하고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거주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이로움을 얻을 수 있는 곳에 삶의 터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삶터 자체를 수시로 매매함으로써 이익을 내려는 이상한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다. 농경민족으로 한곳에 정착하여 마을을 만들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던 우리 민족이 부동산 가격의 풍향계가 지시하는 대로 언제든지 보따리를 쌀 수 있는 도시의 유목민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와 달리 수백 년 동안 지속해온 우리의 전통마을은 지속가능성이 매우 큰 거주지라고 할 수 있다.

## 5절\_ 디자인의 유기성과 상대성

전통사회에서 거주지의 기본 단위였던 마을은 언뜻 어떠한 질서도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 아파트단지의 ‘앞으로 나란히, 좌우로 정렬’에 익숙한 우리에게 전통마을은 무질서해 보이기까지 한다. 웃골마을처럼 비교적 기하학적인 구성을 가진 마을도 있지만 대개의 전통마을은 한눈에 쉽게 파악되는, 좁은 의미의 기하학적인 질서가 아닌 유기적이고 위상기하학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전통마을의 디자인은 관계의 디자인이며 그것은 유기적 질서를 만들어낸다. 그 결과, 마을의 공간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사회관계, 그리고 주변 자연과 대응하면서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위상기하학은 도형의 크기·모양 등이 아니라 도형을 이루는 점·선·면들이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를 보고 같은 상태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일이다. 곧, 위상기하학은 도형의 변하지 않는 거리나 각도, 면적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근접(proximity), 분리(separation), 계속(succession), 폐합(closure; 내부/외부관계), 연속(continuity)이라는 관계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기하학적인 절대 위치가 일정한 원칙에 따라 변형되어도 그것이 가지는 위상기하학적 의미는 변함이 없게 된다.<sup>13)</sup>

사실 직선·원·육면체구 등의 유클리드 기하형태에서만 질서를 느끼는 것은 아름다움을 너무 형식적으로, 좁고 굳은 시각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런 태도는 우리의 경험이 자연과 멀어질수록 심해진다. 물론 많은 자연현상의 이면에는 기하학적인 질서가 있지만, 우리가 직접 느끼는 자연미는 대체로 유기적인 모습에서 얻어진다. 우리가 인공보다는 자연 쪽으로 두 눈을 돌려 기하학이라는 경직된 올가미를 벗고 유연한 안목을 가질 때, 씨족마을 안에 숨어 있는 사회적·공간적 질서가 보이기 시작하며 마을공간의 진정한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유연한 안목’ 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유기적인 모습이 감추고 있는 질서가 관계에서 발생함을 인식하고, 개개의 현상이 아니라 관계에 눈을 돌리는 것을 말한다. 1, 1, 2, 3, 5, 8, 13, 21……. 이것들을 개개로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숫자의 나열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을 관계의 관점에서 파악하면 인접한 두 항의 합이 다음 항이 됨을 발견할 수 있다. 곧, 이 숫자들은 ‘피보나치(Fibonacci) 수열’이라고 일컬어지는 질서를 가진다. 그 안에는 인접항과의 비율이 1.618……이라는 횡금비를 향해 접근해가는 질서가 있다.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현상들의 이면에 때로는 단순한 모습으로 정연한 질서가 숨어 있다. 이같은 디자인과 미학에 대해서는 뒤의 ‘닭실마을의 디자인’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볼 만한 전통마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씨족마을에는 거주자들의 사회관계가 마을 공간구조에 구현되어 있다. 여기서 사회관계란 주로 문중의 종법(宗法) 질서에 바탕을 둔 것이다. 그리고 공간구조란 마을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 곧 길주택·공동시설 같은 인공요소와 산과 물나무 같은 자연요소들이 맷고 있는 상호관계를 말한다. 그러한 요소들의 의미와 디자인은 각각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것들 사이의 관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온전히 파악될

---

13) Norberg-Schulz, Christian, *Intentions in Architecture*, Allen and Unwin, 1963, 43쪽

수 있다. 주택의 디자인을 상대적인 관점으로 지형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한 예는 뒤의 ‘양동마을의 디자인’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제 3부  
대표 마을과 디자인

## 1장. 양동마을의 디자인



그림11. 양동마을 배치도

(숫자가 붙은 것은 보물 및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집들임.)

- 1.서백당 2.무첨당 3.관가정 4.향단 5.수줄당 6.낙선당 7.이원봉가옥 8.이원용가옥 9.이동기기옥 10.이희태가옥 11.안락정 12.이향정 13.강학당 14.심수정 15.수운정  
a.손종로 정총비각 b.영귀정 c.설천정 d.경산서원 e.대성헌 f.육위정 g.양줄정 h.동호정 i.영당 j.내곡정

### 1절\_ 안대와 공동성

전통한옥은 빼어난 모양의 산봉우리를 바라보고 자리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 러한 산봉우리를 안대(案帶)라고 한다. 양동마을의 무첨당에서 볼 수 있듯이, 안대는 같은 주거 내에서도 안채·사랑채·사당 등에서 서로 다를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옥에서는 방위가 각기 다른 채들이 모여 역동적인 하나의 주거공간을 이루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지형구조가 복잡한 양동에서는 안대로 삼을만 한 봉우리들이 마을 주위에 많다. 마을 남쪽 능선을 이루는 성주봉, 남쪽 멀리에 호명산과 낙산, 그리고 서쪽 멀리에 무릉산과 자옥산 등이 있다.

양동마을을 주도해온 월성 손씨와 여강 이씨 등 두 문중은 안대까지도 상대 가문의 안대를 피하려 했다. 역으로 같은 가문에서는 안대를 공유함으로써 또는 서로 안대로 삼고 안대가 되어 줌으로써 시각구조에서도 공동성을 가지려 하였다.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것, 그것은 심리적 연대를 의미하는 것이다.

관가정의 사랑채 등 손씨의 건물들은 대개 종가인 서백당의 사당이 취한 무릉산을 안대로 삼고 있다. 이에 비해 이씨 건물들은 여러 곳을 안대로 삼고 있으나 대종가인 무첨당의 사당이 취한 형산강 너머의 낙산을 주요한 안대로 삼고 있다. 특이한 것은 손씨의 관가정과 이씨의 무첨당에 있는 사당들이 각각 손진경가옥과 십수정의 안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이같이 산봉우리가 아니라 건물이 안대로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sup>14)</sup>



그림12. 심수정

향단의 큰길 건너편에 자리잡은 여강 이씨 향단파의 정자. 무첨당의 사당을 안대로 삼아 배치되었다.

## 2절\_ 지형을 고려한 상대적 디자인

양동마을의 전면에 있는 관가정은 월성 손씨의 대종가인 서백당에서 분가한 집이다. 그리고 뒤이어 그 옆으로 여강 이씨의 파종가인 향단이 지어졌다. 기

14) 김봉렬, 『앎과 삶의 공간 - 은둔을 위한 미로들』, 이상건축, 1999, 262쪽).

등의 격자체계를 일정하게 반복함으로써 구성된 관가정은 살림집 역할을 하기 어려우리만치 질서정연하다. 물론, 안방에 부엌이 떨려있지 않는 등 지금의 평면구성으로는 살림집으로 쓰이기 어렵게 되어 있는데 이는 본래의 모습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향단은 회재가 그의 동생 이언팔을 위해 신축한 것이라 한다. 향단은 틀에 박힌 관가정과 달리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관가정과 같은 □자형 한옥을 극적으로 변형한 모습이라고 할만하다.

외부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관가정과 달리 밖으로 두드러진 향단의 세 박공면들은 강한 인상을 준다. 관가정과 달리 향단에는 박공이 과장되게 설치되었고 모든 기둥을 원기둥으로 사용했으며 사랑채의 기둥 위에는 익공(기둥머리와 보 사이에 끼워지는 판재), 대들보 위에는 복화반(수평부재 사이를 받치는 판재로, 위보다 아래가 넓은 것) 등 장식적인 부재들이 설치되어 과시의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시원한 논리성의 관가정과 쥐어짜듯 수놓듯 한 향단, 기둥을 낮추고 지붕의 경사까지도 완만하게 하여 몸을 낮춘 관가정과 뽑내듯 자신을 드러내는 향단, 그 조형의 차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림13. 관가정의 대청에서 내다본 모습  
서백당에서 분기한 손씨 기문의 주택으로 이성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

관가정과 향단이 보이는 외견상의 대조를 지형과의 관계에서 이해할 수 있다. 주변의 지형을 유심히 살펴보면 관가정은 볼록한 지형에, 향단은 오목한 지형에 자리잡고 있다. 건물을 지형과 함께 생각할 때 이 두 집은 나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관가정(觀稼亭)은 이름 그대로 농사짓는 광경을 려보는 ‘정자’이다. 정자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관가정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양반들이 소작인들의 농사를 감독하는 기능도 있다. 이

런 정자는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고 주변을 살필 수 있는 볼록한 지형을 원한다. 다소 오목한 지형에 자리잡은 향단이 볼록한 지형에서 몸을 낮춘 관가정과 균형을 이루려면 과장적인 몸짓을 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그림14. 향단의 인체

여강 이씨의 대종가인 무첨당에서 분기한 주택으로 극단적인 공간적 변형을 보여준다.



그림15. 관가정과 지형

볼록한 지형에 대응하는 낮은 조형을 가지고 있다.



그림16. 향단과 지형  
오목한 지형에 대응하는 과장된 모습으로 지어졌다.

## 2장. 하회마을의 디자인

하회에는 농민들의 가면극인 별신굿이 있듯이 마을사람 모두의 공간인 삼신당(三神堂)이 있다. 양반들의 놀이인 줄불놀이만 있고 별신굿이 없거나, 상류 한옥만 있고 삼신당이 없다면, 한 마을이 신분의 차이, 경제력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며 육백 년 이상 지속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연구자는 엘리트들의 건축보다 마을사람들 모두의 건축인 삼신당에서 더 많은 건축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회의 공동공간인 삼신당보다 건축적으로 훌륭한 마을공간을 다른 데서 찾기는 어려울 것 같다. 삼신당과 그것에 이르는 골목은 하회마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공간디자인을 보여준다. 어떤 의도와 개념을 가지고 만들어진 공간과 장소가 이토록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를 자아내기는 쉽지 않으리라.

삼신당 공간은 마당과 그곳에 이르는 골목으로 구성된다. 동서로 뻗은 안길의 중간쯤에 삼신당으로 가는 좁은 골목이 있다. 이 골목은 당목이 있는 마당으로 사람을 깊숙이 끌고 들어간다. 다른 마을들에서도 대개 그렇듯이 하회마을의 신당은 상중하당으로 이루어지는데, 상당은 화산 중턱의 서낭당이고 중당은 화산 자락의 외진 곳에 있는 국사당이며 하당은 바로 이곳 삼신당이다. 신당에 의해 마을공간이 주산인 화산과 상징적으로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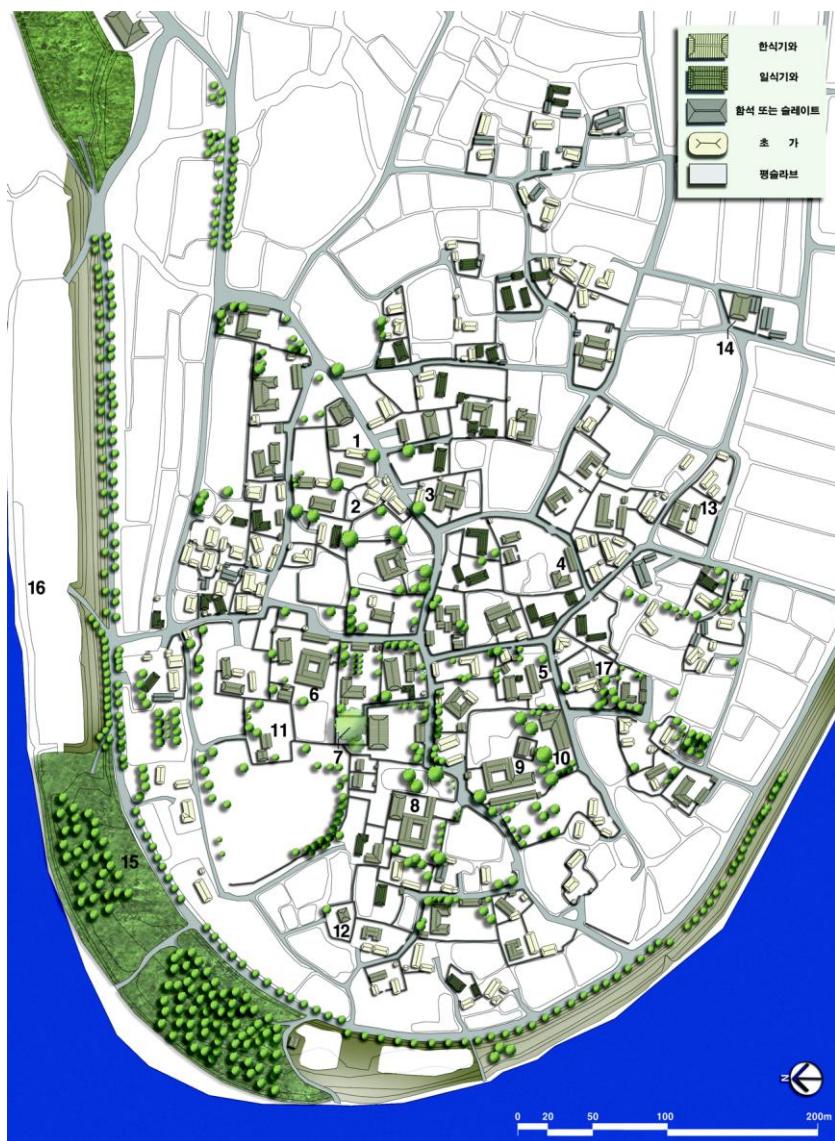


그림17. 하회마을 배치도

- 1.경로당(보존회 사무실) 2.이연옥가옥 3.하동고택 4.남촌택 5.주일재 6.북촌택 7.삼신당 8.양진당 9.충효당 10.영모각 11.원지정사 12.빈연정사 13.조순희가옥 14.하회교회 15.만송정 16.도선장 17.류세하가옥

삼신당은 마을신의 집이라고 할 수 있다. 정월 대보름과 음력 사월 초파일에는 이곳에서 마을의 안녕을 비는 마을의 제사, 곧 동제(洞祭)를 지낸다. 자식이 없는 사람들은 조용히 와서 자식을 얻게 해달라고 빌기도 한다. 마을의 평안과 풍요를 기원한다는 측면에서 동제와 비슷한 목적을 가지나 매년 치러지는 동제와 달리 몇 년마다 하는 마을의 행사로 별신굿이 있다. 하회마을을 유명하게 만든 하회별신굿은 탈춤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런데, 애초에 이 탈춤은 삼신당에서도 공연되었다고 한다. 민중의 예술이 모든 사람의 공간에서 공연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일이겠다. 지금 별신굿은 마을입구 쪽의 원

형극장에서 일어나는데, 원형극장을 꽉 메운 관객들로 열기가 가득하고 공연 자체도 짜임새 있고 완성도가 높아 한 시간의 공연 시간이 조금도 지루하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본래의 공간에서 이탈되었을 뿐 아니라 하회사람의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어서 그것이 가졌던 대동적 분위기는 사라졌다.

삼신당은 ‘통로를 거쳐서 목표가 되는 중심공간에 이르면 그 공간은 수직적 요소에 의해 영원과 통하는’ 신성한 공간의 보편적인 구성방식을 보여준다. 삼신당은 세계의 중심인 마을, 마을의 중심인 주거지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다. 주거지 중심부에는 중심성이 강한 정방형의 마당이 있으며 그 중심에는 당목이 서있다. 곧, 긴 움직임의 최종 목적지는 당목이다. 이 당목은 하늘로 솟아서 영원한 우주의 중심인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

최종 목적지인 당목에 이르려면 기나긴 통로를 거쳐야 한다. 북동쪽의 마을 입구에서부터 동서로 난 긴 안길, 그리고 그에 이어지는 골목은 영원의 공간에 이르는 긴 통로를 상징한다. 안길을 따라오면 삼신당으로 들어가는 골목이 있다. 안길과 90도를 이룬 이 골목은 43m에 이르는 긴 통로이다. 그런데 북쪽으로 난 이 골목은 끝에서 다시 왼쪽으로 90도 꺾여 8m 정도 더 이어진다. 이렇게 두 번 통로를 직각으로 굽절한 것은 공간의 깊이감을 더해주고 기대감을 고조시키는 고도의 처리수법이다. 그 기대는 갑자기 나타나는 중심공간, 곧 너른 마당 그리고 그 안의 수직적 요소, 곧 큰 당목에 의해 절정에 이른다. 제한된 주거지공간이지만 적절한 공간구성으로 삼신당 공간의 깊이감과 감동이 극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림18. 삼신당 골목

삼신당에 이르는 골목은 한 기족이 옆으로  
나란히 걷기에 좁은 아담한 골목이다.



그림19. 삼신당

삼신당은 당목과 그것을 둘러싸는 정방형에  
가까운 마당으로 구성된다.

우리 현대건축의 거장인 김수근은 ‘좋은 길은 좁을수록 좋고 나쁜 길은 넓

을수록 나쁘다’는 제목의 글을 쓴 적이 있다. 실제로 그의 대표작인 서울 종로구 원서동의 ‘공간사옥’(1977년 설계)에서 통로와 계단은 매우 좁게 처리되었다. 그는 이런 작은 스케일의 아기자기한 공간 만들기를 한옥에서 배웠다고 한다. 그는 연경당(1828년 창덕궁의 후원에 지어진 한옥)의 대청에 앉아, ‘한국은 과거에 멋진 건축가를 지녔었노라’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sup>15)</sup> 삼신당에 이르는 골목은 좁아서 좋은 그런 길이다. 허전하지도 답답하지도 않은 알맞은 느낌을 주는 길이다. 길을 따라 조금 들어가면서 골목길을 이루는 담을 잘 살펴보면 왼쪽은 토석담이고 오른쪽은 토담이다. 그래서 약간의 변화감도 느껴진다. ‘과거의 멋진 건축가’의 작품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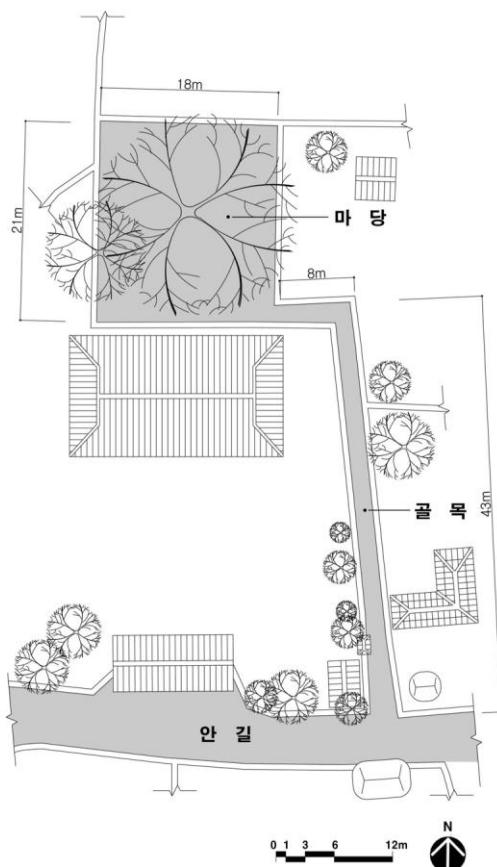


그림20. 삼신당 배치평면도

삼신당은 당목인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사각형에 가까운 마당이다. 상당과 중당은 건물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하당인 삼신당에는 건물이 없다. 느티나무는 풍산 류씨의 입향조인 류종혜가 고려말에 마을로 들어왔을 때 심은 것이라 하니, 600년 이상 된 고목이다. 나무의 높이는 15m, 둘레는

15) 김수근, 「최순우 선생의 두 눈」, 『샘이 깊은 물』, 1985. 2

5.4m에 이르는 거목이다. 이 중심공간의 수직 요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 는 의미를 가지며, 따라서 평범한 하나의 마당을 신성(神性)을 갖는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당목의 줄기는 마당의 중심을 만들고 그 가지들은 건물의 지붕처럼 마당을 모두 덮고 있다. 그래서 삼신당 마당은 바닥, 벽, 지붕을 모두 갖 춘 하나의 건축공간이 된다.

좋은 공간감은 너무 허전하지도 또 너무 답답하지도 않은 것이다. 그런데, 공간의 느낌은 그 공간의 비례 그리고 그 공간을 만드는 요소들의 특성에 직 결된다. 골목에서는 담, 삼신당 마당에서는 담과 고목이 공간을 만드는 직접적인 요소들이다. 담 높이(195cm 정도)와 골목 폭(191cm 정도)은 모두 성인의 키를 조금 넘는다. 담의 높이가 180cm 이상이 되어 성인의 키를 넘으면 길 밖에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고 길 안에서는 폐쇄성이 느껴진다. 삼신당은 마을의 공동 공간이므로 개인 공간인 인접 주택들에서 그 공간의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고, 또 골목에서는 집안이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디자인한 것이다.

골목에서 양팔을 뻗으면 담에 두 손가락이 달랑 달랑 한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비트루비우스 인체도(Vitruvian Man)’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이 양팔을 뻗은 거리는 키와 같다. 이런 사람 키 정도의 길이를 우리는 ‘길’이라는 단위로 부른다. 이렇게 삼신당 골목에서 공간의 폭과 골목을 규정하는 요소인 담의 높이는 모두 한 길을 조금 넘으며 그 비례는 대략 1:1이다.

동서양의 건축이론가들은 모두, 선적인 공간의 경우 요소의 간격(D)과 높이(H)의 비가 1:1일 때 개방감과 폐쇄감의 균형이 잡히는 가장 아늑한 공간감을 느낀다고 한다. 그리고,  $D/H < 1$ 이 되면 답답함을 느끼게 되고  $D/H > 2.5$ 이면 아득하게 둘러싸인 느낌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sup>16)</sup> 여기에 따르면 삼신당 골목은  $D/H=1$ 의 경우로 가장 적합한 비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마당이나 광장과 같이 넓적한 공간의 경우, 그것을 규정하는 담의 높이가 공간 폭의  $1/2 \sim 1/3$ 일 때 가장 편안하게 느껴지며  $1/4$  이하일 때는 그 공간의 아늑함이 사라지기 시작한다고 한다. 삼신당 마당의 경우, 마당의 폭은 동서방향이 약 1,800cm, 남북방향이 약 2,100cm이니 평균 1,950cm이다. 그리고 담의 높이는 195cm 정도이니  $D/H = 10$ 이다. 그러면 삼신당 마당은 허전하기 짝이 없는 공간인가? 그렇지 않다. 이 마당의 중앙에 옆으로 가지를 펼친 느티나무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느티나무는 줄기를 마당의 가운데에 두고 가지로는 커다란 우산처럼 마당을 덮어서 마당을 매우 적절한 크기로 분절하며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느티나무, 곧 당목에는 새끼줄로 금줄이 둘리어있다. 금줄은 잡귀를

16) 'Ashihara, Yoshinobu, *Exterior Design in Architecture*, VNR, 1970', 'Lynch, Kevin, *Site Planning*, The MIT Press, 1984' 등 참조

아낸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것은 하나의 평범한 나무를 신앙의 대상으로 격상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종교적인 당목에 두른 금줄은, 출산을 했을 때 집문 앞에 내거는 금줄과 달리, 썩어 없어질 때까지 철거하지 않는다.

## 3장. 닭실마을의 디자인

### 1절\_ 자연스러움에 숨겨진 질서

닭실마을에서는 집들이 서로 조금씩 몸을 틀어 뒷집에 시선과 햇볕을 터주고 있다.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조절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주거지는 지형에 따라 남서향을 취하였지만 각각의 집은 서로 조금씩 다른 향을 택하였다. 어느 집도 꼭 정남향을 하겠다고 고집하지 않은 것이다. 집의 위치나 높이는 서로를 배려하며 정해졌다. 권세기가 옥이 그 뒷집인 권원가옥에 비교적 바짝 붙어 지어질 수 있었던 것은, 두 집터 사이에 지형의 높이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안마당을 둘러싸는 모자집이었던 권원가옥 안채와 사랑채의 기단이 모두 높아서 그 시야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화가 많은 지형은 집들이 비교적 좋은 향을 택하면서도 서로 방해하지 않고 골고루 시선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분석을 통해 불규칙하고 무질서해 보이는 집들이 정연한 하나의 도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도형은 자연의 섭리를 드러내주는 비례라고 하는 황금비를 바탕으로 그려지는 것이다. 그 도형은 집들 사이의 간격을 균등하게 조절하여 모든 집들의 조망과 일조의 조건을 최적화해주는 해답이었다. 불규칙해 보이는 현상 속에 가장 합리적인 질서가 숨어있었던 것이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닭실마을의 집들은 피보나치수열로 이루어지는 등각나선형으로 배열되었다는 것이다. 집들은, 마치 나뭇잎이나 꽃잎처럼, 등각나선을 따라 배열됨으로써 모두 최적의 조망과 일조를 얻게 되었다.

분석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등각나선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등각나선은 나선 하면 쉽게 떠올려지는 아르키메데스나선(Archimedes spiral)과는 다른 독특한 나선이다. 후자는 우리가 화단에 호스로 물을 뿌린 후 그것을 돌돌 감을 때 생기는 모양으로, 나선을 이루는 인접한 선들 사이 간격이 일정하다. 그러나, 전자는 나선이 중심에서 밖으로 진행될수록 나선을 이루는 인접한 선들 사이의 간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등각나선을 로그나선 또는 대수나선(logarithmic spiral)이라고도 한다.

아르키메데스나선은 나선의 접선들이 중심과 이루는 각도가 일정하지 않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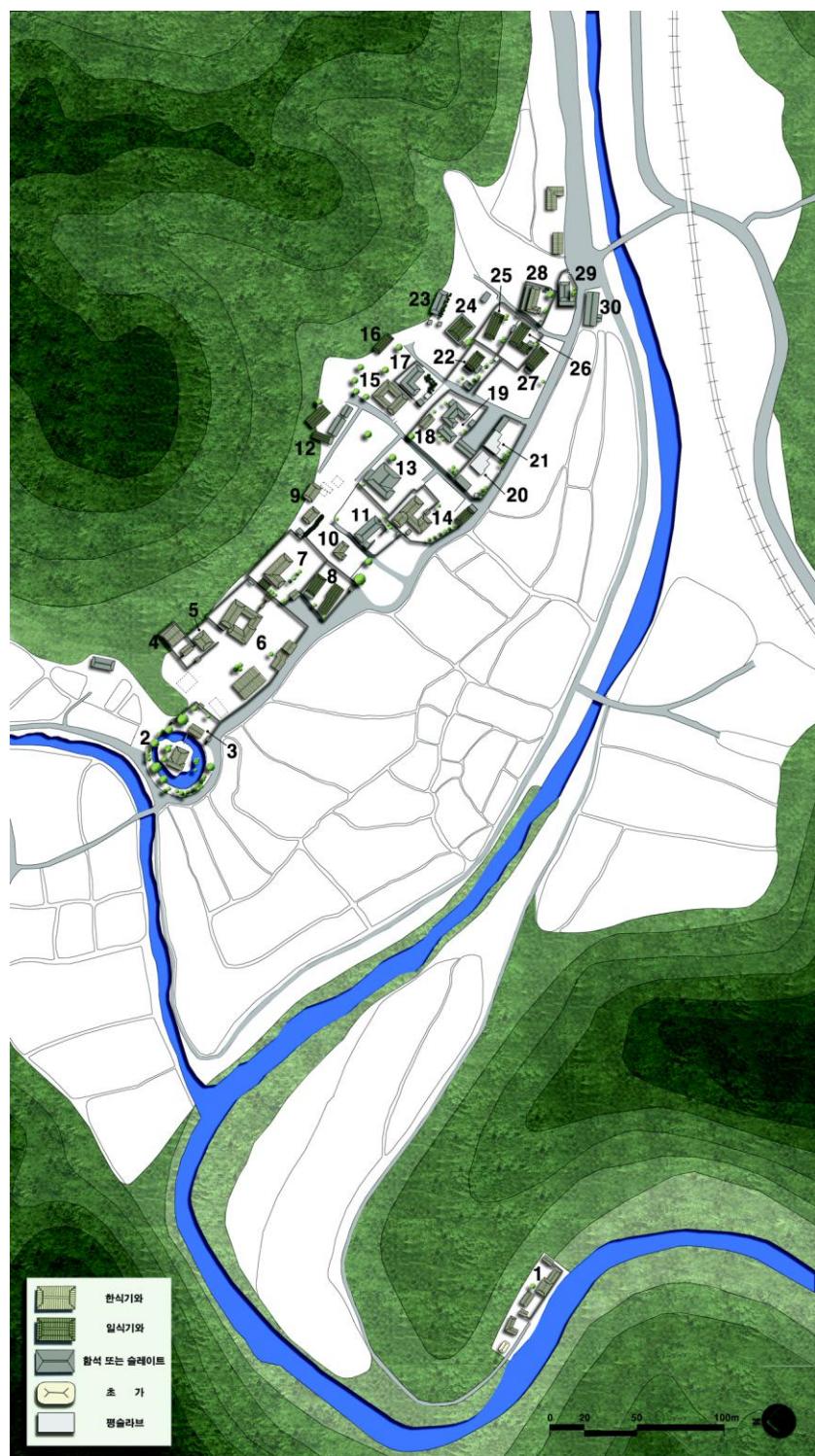


그림21. 담실마을 배치도

- 1.석천정사 2.청암정 3.충재 4.충재종택 사당 5.갱장각 6.충재종택 7.권각가옥 8.권승호가옥 9.권석대가옥(관행당) 10.권현섭가옥 11.권영섭가옥 12.권석수가옥 13.권원가옥 14.권세기기옥 15.권양호가옥 16.권영석가옥 17.권규가옥 18.권석오가옥 사당 19.권석오가옥 20.권석주가옥 21.권석효가옥 22.권성호가옥 23.권진수가옥 24.권성기기옥 25.권경기기옥 26.권승환가옥 27.권수기기옥 28.권영창가옥 29.권기정가옥 30.경로당(창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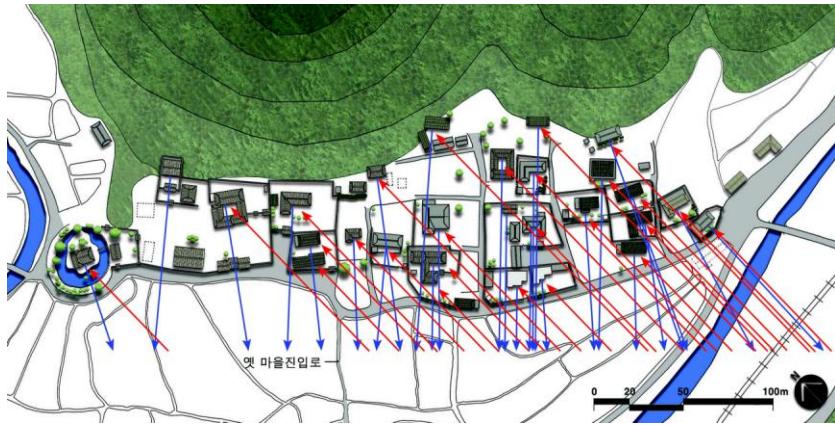


그림22. 닭실마을 조망일조 분석도  
파란 선이 조망, 빨간 선이 일조를 나타낸다.

며 그것은 나선이 커갈수록 90도에 수렴한다. 곧, 나선이 점차 원형을 닮아가는 것이다. 이에 비해 등각나선에서는 나선의 회전수에 관계없이 그 각도가 일정하다. 곧, 중심에서 나선상의 어느 지점을 직선으로 이어도 그 직선이 동일한 각도로 나선을 자르는 것이다. 이런 특징을 반영하여,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는 1638년 등각나선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등각나선은 피보나치수열, 곧 황금비와 긴밀히 관련되는 나선이다. 그림23에서처럼, 한 번의 길이가 피보나치 수인 정사각형을 계속 이어나가고 각 정사각형의 대각 꼭지점을  $1/4$  원호로 이으면 등각나선이 만들어진다. 황금비가 그렇듯이 등각나선도 자연에서 종종 발견된다. 등각나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크기가 커지더라도 형태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점이다. 이런 성질을 자기동일성(self-similarity)이라고 하는데, 이는 자연물이 성장할 때 요구되는 성질이기도 하다. 앵무조개가 성장하는 것도 등각나선을 따른다. 앵무조개는 몸이 자라면서 그것을 담을 껍질을 계속 키워야하는데, 이 때 형태를 유지하면서 아주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성장하는 방식은 등각나선을 따르는 것이다. 더 이상 쓰지 않는 작은 튜브 둘레로 점점 큰 튜브가 등각나선을 그리며 성장하여 앵무조개는 자라는 몸을 계속 큰 방으로 옮겨 담게 된다.

송골매가 먹이를 사냥할 때도 등각나선을 그린다. 먹이를 향해 직강하하면 더 빨리 먹이를 낚아챌 수 있을 텐데도 송골매는 빙 돌아서 먹이를 공격한다. 이는, 송골매의 두 눈이 이마의 중간에 있지 않고 머리의 양쪽에 하나씩 붙어 있어서 직강하할 경우 먹이를 주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송골매는 날카로운 시력으로 유명하지만 보지 않고도 먹이를 사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송골매는 먹이, 곧 등각나선의 중심점과 약 40도를 이루도록 머리를 위치시키고 한 눈을 먹이에 고정한 채 등각나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것이다. 그밖에 도, 소용돌이, 태풍, 은하수의 별들에 이르는 많은 자연현상이 등각나선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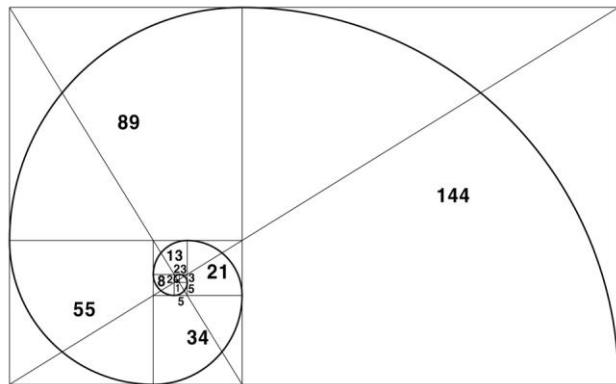


그림23. 등각나선의 작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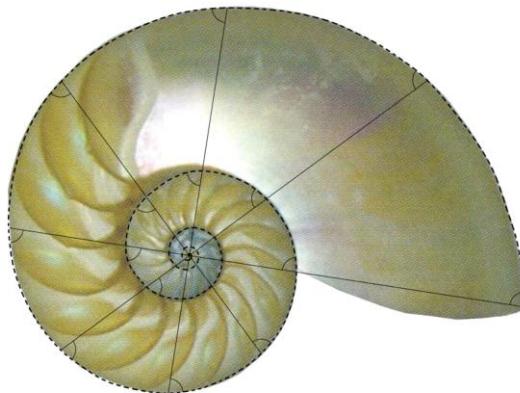


그림24. 앵무조개의 성장과 등각나선

앵무조개는 중심과 약 80도를 이루는 등각나선형으로 성장한다.

닭실마을의 주거지는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발달한 세 개의 셋길을 중심으로 세 구역으로 나뉜다. 주거지의 북서쪽에서부터 1, 2, 3 구역으로 번호를 지정하면, 주거지는 대체로 1 구역에서 3 구역으로 성장하였다.<sup>17)</sup> 이렇게 물리적으로 구분되는 세 구역은 각각 안동 권씨 판서공파의 세 지파(支派)에 대체로 대응한다. 곧, 1 구역에는 하당파(荷塘派), 3 구역에는 선암파(仙岩派)가 모여 산다. 닭실에 있는 두 집이 겸와파(謙窩派)에 속하는데, 그 중의 한 집인 권원가옥은 2 구역에 있다.

각 구역에는 중심이 되는 집(앞으로 ‘중심주택’이라고 함) 주위로 여러 집들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분산 배치되어 있다. 중심주택은 해당 구역에서 맨 처음 지어진 것들이다. 안마당을 집의 중심이라고 볼 때, 각 구역에서 집들의 안마당은 중심주택의 안마당을 중심으로 3차원적으로(경사진 지형으로 인해) 그려지는 등각나선에 놓이거나 그 바깥에 접하여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

17) 강선중, 김홍식, 「마을공간 구성방법에 대한 한국전통사상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 논문집 6권 1호』, 1986. 4, 57쪽)

적으로 닭실의 집들은 거의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된 같은 크기의 세 등각나선을 이루다. 각 구역에서 집들이 지어진 순서를 살펴보면, 집은 등각나선 상에 순차적으로 배열되지 않고 중심주택의 양쪽을 갈지자(之) 형으로 왔다 갔다하면서 지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새로 지어지는 집이 가능하면 기존의 주택들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등각나선은 회전을 하면서 중심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 따라서 닭실마을에서 중심주택과 인접 주택 사이의 거리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오면서 점차 멀어진다. 그래서 중심주택의 정남향에 오는 집, 곧 중심주택의 일조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집이 중심주택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지게 된다.

세 구역의 주거지의 중심에는 각각 충재고택, 권원가옥, 권수기가옥이 있는데 이 집들의 안마당이 각 등각나선의 중심이 된다. 세 중심을 이으면 직선이 되는데, 중심들 사이의 거리는 거의 동일하다. 곧, 충재고택의 안마당 중심(a)과 권원가옥의 중심(과거의 안마당 중심; b) 사이의 거리는 118m, 권원가옥의 중심(b)과 권수기가옥 안마당의 중심(c) 사이 거리는 120m로 두 거리 사이의 오차는 1.7%에 불과하다. 중심주택들은 서로 같은 간격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은 각 구역이 균등한 공간을 점유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와 함께, 세 등각나선의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으면 선분이 다섯 개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의 길이는 대체로 동일하다. 곧,  $a'a''(58.2m) \approx a''b'(58.4m) \approx b'b''(61.7m) \approx b''c'(58.1m) \approx c'c''(62.5m)$ 이다. 그런데 집들이 등각나선을 정확히 따른다고 보았을 때, 이 선분들은 중심주택의 양쪽에 배치되는 집들 사이의 간격에 해당한다. 따라서 중심주택 이외의 집들도 서로 같은 간격으로 배치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등각나선의 중심을 통과하는 직선은 나선을 이루는 인접한 선들 사이의 간격을 황금비로 나눈다. 따라서, 중심주택들 사이를 연결하는 직선상에 놓인 어떤 집에서 그 왼쪽에 인접한 중심주택까지의 거리( $b'a$  또는  $c'b$ )와 그 집에서 자기 구역의 중심주택 건너편에 있는 집까지의 거리( $b'b''$  또는  $c'c''$ ) 사이의 비는 황금비가 된다.

그럼, 이렇게 닭실마을에서 황금비로 이루어진 등각나선이 발견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무엇보다도, 자연스러움의 이면에 정연한 질서가 있음을 발견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닭실마을에서는 주위를 아무리 둘러보아도 직선, 원 등의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는 보이지 않으나 이것이 곧 무질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이 확인된 것이다. 또한, 앵무조개의 예에서 잘 알 수 있듯이, 등각나선은 고정 불변의 질서가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진화하는 살아있는 질서이다. 곧, 닭실마을은 마치 유기체처럼 살아 움직이면서도 일정한 질서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찌 보면, 등각나선이 자연현상에서 종종 발견되는 질서임을 생각할 때, 비록 사람이 만든 것이지만 자연현상만큼이나

자연스런 마을에서 그것이 발견된 것은 그리 놀랄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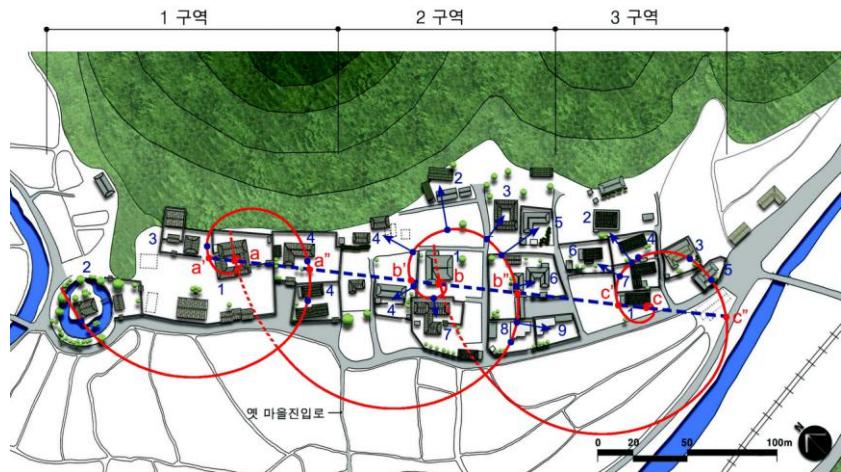


그림25. 등각나선을 사용한 닭실 주거지 분석도

번호는 해당 구역에서 집이 지어진 순서임.

## 2절\_ 자연과 조화되는 두 가지 방식

닭실마을에는 청암정(靑巖亭)과 석천정사(石泉精舍)라는 두 정자가 있다. 그런데, 이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두 가지 서로 대비되는 방식을 보여주어 흥미롭다.

1526(중종 21)년에 충재가 지은 청암정은 주거지의 북서쪽 끝에 위치하여, 남동쪽에서 이어져온 마을 안길에 동그랗게 마침표를 찍어준다. T자형으로 생긴 이 정자는 북서쪽만 폐쇄적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세 면은 개방되었다. 면적은 아홉 칸인데, 바닥에는 모두 마루가 깔렸다. 이 정자가 지어진 바위가 거북이 같이 생겨서 이 정자는 처음에 구암정(龜岩亭)이라고 불렸는데, 후에 충재의 큰아들 권동보의 호를 따서 청암정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청암정이 놓인 바위와 석천정사 앞을 흐르는 시내에 있는 반석은 실제로 푸른빛을 띠고 있다. 그래서 청암정이라는 이름은 자연, 인물, 그리고 건물이 하나됨을 상징하는 듯하다.

본래 이곳에 거북이 모양의 바위가 있었고, 거북이가 물이 필요하므로 주위를 파고 밖의 시냇물을 끌어들여 연못을 조성하였다. 결과적으로 자연과 인공이 결합한 바위섬이 만들어졌다. 연못의 주위로는 소나무, 느티나무, 향나무 등의 나무와 장미 같은 꽃나무들이 심겨졌다. 청암정은 주변 자연요소들의 중심으로서 그것을 둘러싸는 바위와 연못, 나무들과 함께 매우 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연못 밖에서 정자로 가는 작은 돌다리를 건너면, 사화(土禍)로 상징되는 극 단적인 정쟁(政爭)이 난무하는 속세에서 벗어나서 자연에 둘러싸여 영원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별천지가 된다. 그래서, 연못의 물, 나무들로 차례로 둘러싸인 청암정은 더 이상 어디로 가는 통로가 아니라 움직임의 최종 목적지이다. 청암정에서는, 마을의 다른 집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남산이 바라보일 뿐 특별한 경치가 들어오지는 않는다. 더욱이 정자 앞에 큰 나무들이 있어서 앞이 시원하게 내다보이지도 않는다. 또한, 마을에 전해내려오는 유곡팔경(酉谷八景)에서 청암정에 관한 것은 ‘연못(靑巖荷池)’과 ‘저녁 비(靑巖暮雨)’ 등 두 가지인데, 모두 외부지향적인(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에서 본 인근의 자연을 칭하는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정자가 밖을 향하기보다는 밖에서 들어오는 종착점임을 암시한다. 정자 건물 자체도 이런 추론을 뒷받침한다. 멀리 내다보기 위해 땅바닥에서 성인의 키만큼 높이 들어올려지는 다른 정자들과 달리, 청암정은 통풍을 위해 바위에서 3자(90cm) 정도만 높여졌다.

중심에 대한 의식이 너무 앞섰기 때문일까, 아니면 세상에서 벗어나도 벗들과 함께 하고픈 마음 때문이었을까, 청암정은 그 기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바위의 크기에 비해 규모가 다소 과도하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바위가 일체화된 청암정은 우리 정자 건축의 걸작이라고 할만하다. 그래서 일찍부터 명사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1565(명종 20)년, 이곳에서 멀지 않은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의 도산서당에 거처하던 퇴계는 닭실을 방문하고 정자가 바위, 연못 등 자연물과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는 시 두 수를 지었다고 한다. 물론 퇴계가 이곳에 온 것은 정자를 감상하려는 것보다는 충재가 작고한 후에도 그를 흡모하는 정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퇴계는 충재보다 23살 연하로, 충재가 밀양부사로 부임할 때 백면서생(白面書生)으로 그를 수행했을 만큼 그 인연이 오래되고 각별하였다. 이 인연은 후대에까지 이어져서, 충재의 5대손인 권두경은 ‘퇴계선생언행록’을 편집하여 충재가 모셔진 삼계서원에서 간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청암정에는 전서(篆書)의 대가인 미수(眉叟) 허목이 88세 때인 1682년, 충재를 흡모하고 정자의 아름다움을 친미하는 마음으로 ‘靑巖水石(청암수석)’이라고 쓴 편액이 걸려있다. 그는 그 해로 천수를 다하고 죽었으니 이 편액이 미수의 마지막 작품인 셈이다.

청암정 동쪽 옆에는 충재(沖齋)라는, 건축한 이의 호와 같은 이름의 서재가 있다. 세칸반의 최소 규모로 지어진 이 서재는, 규모가 너무 큰 청암정 옆에 있어서인지 더욱 작고 아담해 보인다. 청암정에는 온돌방이 없으니, 겨울철에 충재는 청암정 대신에 이 작은 서재에서 후학을 교육했다. 그런데, 이 건물은 크기에 비해 유난히 긴 처마가 특징이다. 외벽에서 처마 끝까지의 거리를 재어보니 1.4m이다. 전면 여섯 칸 반에 측면 두 칸 반으로 상당히 규모가 큰

원터마을의 작은종가에서도 전면의 처마 돌출길이가 1.3m인 것을 감안하면, 충재의 처마는 특이하게도 길게 돌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깊은 처마는, 집이 서향을 하고 있어서 저녁 때 집안 깊이 들어오는 뜨거운 햇살을 차단하려고 설치된 것이다.



그림26. 충재와 청암정  
충재증택에서 본 청암정 일곽. 가을 저녁 햇살에 빛나는 단풍으로 더욱 아름답다.

석천정사는 1565(명종20)년 청암 권동보가 건립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죽자 관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산수를 벗삼아 지냈다고 한다. 석천이라는 이름은 자신의 맏아들 권래(청암의 동생 권동미의 둘째아들로 청암의 양자로 들어와 종손이 됨.)의 호를 딴 것이다. 청암정에서도 그랬듯이, 정자의 이름을 자신의 호가 아니라 아들의 호를 따서 지은 데서 건축이 미래지향적인 생각에서 이루어졌음을 엿볼 수 있다. 충재가 1526년에 미리 동구밖 시냇가의 긴 바위에 더하여 돌을 쌓아 축대를 만들어 놓은 터에 청암이 건물을 지었으니, 건축이 대를 이어 구상되고 실현된 것이다. 이렇게 지어진 건물이 1655(효종 6)년, 을미년(乙未年)에 홍수로 떠내려가서 1710(숙종 36)년 권두인과 권두경 등 충재의 5대손들이 다시 지었다 한다.

달걀 모양으로 고여있는 물 가운데에 있는 노른자처럼 중심성을 가진 청암정과 달리 석천정사 일곽은 흐르는 물을 따라서 선적(線的)으로 조성되었다. 시내가 건축의 경계가 되고 건축이 시내의 경계가 되는 모습은 경북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에 있는 독락당의 ‘계정’을 떠올리게 하는데, 시내와 건물 모두 이곳이 좀 더 규모가 크다.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반기는 듯, 석천정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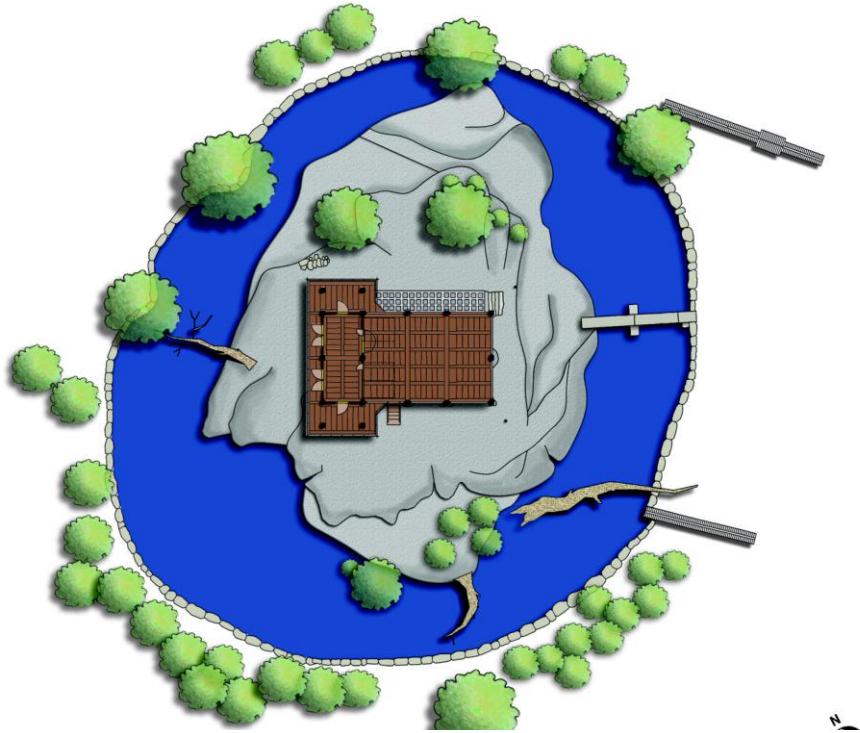


그림28. 청암정 배치평면도

담과 건물은 길게 늘어서있다. 청암정이 정적인 목적지이라면 석천정사는 동적인 길목이다. 정사 뒤로는 남산의 평평한 구릉이 받치고 있고, 앞으로는 청회색의 반석이 평평하게 펼쳐져서 수평적인 분위기가 더해진다. 정사의 담에 씌워진 기와지붕과 중심 건물인 수명루(水明樓) 쪽마루의 계자난간이 시내를 따라 하나의 긴 직선을 이룬다. 수명루가 좀 낮았더라면 수평성이 더욱 살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든다.

청암정이 주변으로 자연물을 배치하고 스스로 중심이 된 인위적인 정자라면, 석천정사는 자연의 흐름을 그대로 따름으로써 자연과 하나가 되고 있다. 전자가 ‘목적’ 이라면 후자는 ‘과정’ 을 의미한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이 두 가지 방식은, 현실적으로 지역의 중심인물인 세도가이면서 정신적으로는 자연을 따르는 소박한 성리학자였던 당시 인물의 이중적 측면을 반영하는 듯하다.



그림29. 충재에서 본 청암정  
돌다리를 건너 정자의 뒤쪽에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그림30. 석천정사  
시내, 축대, 담과 난간, 그리고 지붕이 나란히 평행선을 이루는 수평적인 건축이다.

## 이미지목록

no.	이미지제목	이미지출처	소장기관
1	원터마을 배치도	ATA	ATA
2	정자로 모이는 마을의 길 체계 (원터마을)	ATA	ATA
3	주택 사이의 분리와 통합 (도래마을)	ATA	ATA
4	명재고택의 시릉체 영역	ATA	ATA
5	한개마을 배치도	ATA	ATA
6	도래마을 배치도(일부)	한국건축문화연구소, 『제2차 농촌주거환경 조사연구보고서』, 한 샘, 1989	한국건축문 화연구소
7	전형적인 씨족마을의 공동체 공간 개념	ATA	ATA
8	원터마을의 재실(영모재)과 선산	ATA	ATA
9	풍수지리의 이상적 국면(局面)	ATA	ATA
10	하회마을의 동수	ATA	ATA
11	양동마을 배치도	ATA	ATA
12	삼수정	ATA	ATA
13	관가정의 대청에서 내다본 모습	ATA	ATA
14	향단의 안채	ATA	ATA
15	관가정과 지형	ATA	ATA
16	향단과 지형	ATA	ATA
17	하회마을 배치도	ATA	ATA
18	삼신당 골목	ATA	ATA
19	삼신당	ATA	ATA
20	삼신당 배치평면도	ATA	ATA
21	닭실마을 배치도		
22	닭실마을 조망일조 분석도	ATA	ATA
23	등각나선의 작도	ATA	ATA
24	앵무조개의 성장과 등각나선	ATA	ATA
25	등각나선을 사용한 닭실 주거지 분석도	ATA	ATA
26	충재와 청암정	ATA	ATA
27	청암정	ATA	ATA
28	청암정 배치평면도	ATA	ATA
29	충재에서 본 청암정	ATA	ATA
30	석천정사	ATA	ATA